


크리스찬아카데미-NCCK 공동기획 연속토론회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와 교회

시즌01
1차


“코로나19 이후 세계와 교회”

2020년 9월 14일(월) 오후 6시

 1부 오후 5시 50분
(인사,발제,논찬)

유튜브 생중계

https://youtu.be/f_C79wJFO4Y

 2부 오후 7시 30분
(토론)

줌 회의

링크: <https://url.kr/bvDHle>

회의 ID: 819 2719 9371

암호: ncck2020

공동주최

크리스찬아카데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공동주관

크리스찬아카데미, NCCK신학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와 교회”에 초청합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재난 상황은 우리를 미지의 영역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지구 위에 살아온 인간의 삶 전체와 그 삶이 이루어 낸 인간문명 그 자체에 대하여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만들어 왔던 온갖 자화자찬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묻게 합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니 교회의 과오와 책임은 더욱 크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공동체 보다 더욱 철저하게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반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시대에 교회로서 사는 새 길을 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과 밖에서 새 삶의 길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희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질문들과 과제들을 가지고 연속토론회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코로나19 이후의 한국 사회와 교회의 변화를 향해 많은 분들이 함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 9. 1

크리스찬아카데미 채수일 이사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홍정 총 무

시즌 1)

- 1차 9월 14일(월) 오후 6시 / “코로나19 이후 세계와 교회”
- 2차 10월 12일(월) 오후 6시 / “코로나19 이후 생명과 자연에 대한 성찰”
- 3차 11월 9일(월) 오후 6시 / “코로나19와 한국사회 현상학”
- 4차 12월 14일(월) 오후 6시 / “코로나19시대의 공동체, 그리고 교회”

특별 프로그램) 1월 11일(월) 오후 6시 /

기사연 프로젝트 “코로나19 이후 사회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결과토론회

시즌 2)

- 5차 2월 8일(월) 오후 6시 / “언택트 사회 속에서 새로운 신앙을 묻다”
- 6차 3월 8일(월) 오후 6시 / “코로나19와 대안적 경제 - 생태적 순환경제로의 전환”
- 7차 4월 12일(월) 오후 6시 / “코로나19와 대안적 경제 - 정의적 복지국가를 향하여”
- 8차 5월 10일(월) 오후 6시 / “마무리 대토론”

크리스찬아카데미 - NCKK 공동기획 연속토론회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와 교회

시즌1) 1차 “코로나19 이후 세계와 교회”

목 차

인사말	3
-----	---

발제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질서	5
	김준형 (국립외교원)	
	코로나 이후의 세계와 교회	12
	양권석 (성공회대학교)	

논찬	코로나19 이후 세계와 교회	25
	홍인식 (한국기독교연구소)	
	코로나19와 뉴노멀, 그 진단과 성찰	31
	송진순 (이화여자대학교)	
	코로나 이후 세계와 교회는 이전의 그것이 아니다!	35
	이상철 (크리스찬아카데미)	

향후 일정	41
-------	----

발제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질서

김준형
(국립외교원)

코로나-19는 코로나바이러스의 7번째 변형이라고 한다. 사스나 메르스도 코로나계열의 바이러스였다. 전염병의 확산이 인류에게 엄청난 비극을 안겨준 사례가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있었지만, 경험과 전례를 무색하게 할 만큼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감염력과 치사율이 최강의 조합으로 이뤄져 악마적이기까지 한 이번 바이러스의 창궐이 가져올 미증유의 미래를 현실점에서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오래 인류의 삶을 변화시킬 것인가는 대유행의 지속 시간에 달려있다. 미래의 변화에 대해 이번 팬데믹이 ‘돌연변이’ 인지, 아니면 기존의 추세를 가속하고 증폭하는 촉매일 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이전에 단서와 징조들은 많았고, 추세는 분명했기에 촉매라는 주장에 한 표를 더한다.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 되어 왔던 국제질서가 급격히 힘을 잃으면서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다. 20세기 말과 21세기 초를 풍미했던 세계화(globalization)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해서 냉전체제를 지나 탈냉전으로 꽃을 피운 이른바 ‘자유주의 국제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 LIO)’ 또는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Rule-based international order, RBIO)’의 클라이맥스 같은 것이었다. 미국이 자신을 가리켜 과거에 명멸했던 침탈적 제국주의와는 다르게 동의에 의한 지배질서라고 자화자찬하는 것이 과대평가의 측면이 없지 않지만, 국제질서의 규범으로서 어느 정도는 정당화될 수 있었던 것은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떠받치고 있는 3개의 축인 민주주의, 자유무역, 팍스아메리카나 때문이었다.

그런데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코로나 이전부터 심각한 위기상태였다. 우선 프라하의 봄부터 서울의 봄, 그리고 아랍의 봄까지 절차적 민주주의의 꾸준한 지구적 확산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힘이 약화하고, 권위주의적 스트롱맨들이 대거 등장하며 실질적 민주주의는 후퇴를 거듭했다. 선거 민주주의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정치세력들은 집권 후 민족주의와 선동적 참주정치로 민주주의를 질적으로 훼손해왔다. 행정부의 권한이 막강해지고, 의회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쪼그라들었다. 선거 때만 투표로 잠시 반짝하는 시민의 역할은 평상시에는 관객으로 주변화하는 이른바 ‘관객 민주주의(audience democracy)’로 전락했다.

두 번째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이 극대화되고 있다. 세계는 시장과 자유무역의 무한 확대를 통해 유사 이래 최고의 번영을 누려왔지만, 부작용도 그만큼 컸다. 번영의 과실은 전혀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강요된 희생과 불평등을 초래했으며, 이는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중산층의 붕괴로 이어졌다. 세계화에 특화된 기업과 자본은 기회와 이익의 확장으로 부를 축적했지만, 노동자는 지속적인 임금삭감과 자산하락으로 고통받았다. 2008년 금융위기로 말미암은 위기가 1920년대 말에 겪었던 대공황과의 비교를 넘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몰락을 예견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래도록 지속했던 자본주의의 고성장과 고소득을 통한 번영의 시대가 끝나고, 높은 실업률과 저성장의 고착을 필두로 한 세계 경제의 장기침체, 경제적 불안정의 일상화와 빈부격차의 글로벌화로 대표된다.

마지막 세 번째 축인 국제정치적 안정성도 흔들려왔다. 미국이 패권으로서의 리더십을 던져버렸고,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갈등의 확산으로 팍스아메리카나라는 말은 유용하지 않게 되었다. 국제정치학의 패권안정이론을 증명하듯 2차대전 이후 미국은 안정적 국제질서를 꾸준히 유지하려 했고, 비록 한계를 포함하고 있지만,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다자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전쟁을 예방하고 협력적 안보를 실현하는 데 나름 공헌해왔다. 1990년대 초 동맹과 진영대결로 점철되었던 냉전체제가 붕괴한 이후 이런 노력은 마침내 최종적 결실을 보는 듯했다. 그러나 평화와 안보 등 국제 공공재를 공급하고, 글로벌가치사슬을 유지해오던 미국은 자국 이익 우선주의를 선언하면서 신고립주의를 고집하고 있다. 트럼프즘(Trumpism)은 2008년 재정위기 이후 미국의 위상하락과 중국의 급속한 부상에 대한 우려와 민족주의적 반감을 근본 동기로 깔고 있다. 브렉시트는 자국의 어려움을 유럽통합에 책임을 전가하며, 화려했던 대영제국에 대한 향수를 유럽으로부터 이탈리아 선동했다. 트럼프의 슬로건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브렉시트의 ‘영국 우선주의(Britain First)’는 내부의 실패를 외부의 탓으로 돌리기 위한 배타적 민족주의를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극우포퓰리즘의 전형적 사례들이다.

이런 배경에서 각국은 외부로부터의 안보위험을 과장하고, 군비경쟁을 강조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상황과 많은 유사점이 발견된다. 당시에는 발화지점이 유럽이었다면 지금은 동북아가 후보지로 떠오르는데, 배타적 민족주의의 발흥과 경쟁적 군비 강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시진핑, 아베, 푸틴, 김정은 등도 하나같이 국내 권력의 공고화를 위해 극우적인 안보 포퓰리즘에 의지하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 역시 고립주의적 경향과 네오콘적 대외정책이 혼합되면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냉전질서를 재현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물론 고조되는 미-중 갈등에도 실제로 군사적 충돌에 이르는 것은 어렵다. 미-중 양국의 높은 수준의 상호의존도로 인해 소위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의 패권전쟁으로 몰아갔던 소위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Trap)’에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충돌의 가능성까지는 몰라도 필연성이 이 개념을 처음 제시했던 하버드의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도 동의하지 않는다. 3차대전에 버금가는 묵시록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오히려 불안정한 미-중의 기 싸움과 갈등이 파고를 달리하며 길고 지루한 사이클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볼 때, 코비드-19 팬데믹은 돌연변이가 아니라 이런 추세를 폭발적으로 가속화 하는 변수로 간주하는 것이 현실점에서 가장 타당하다. 팬데믹이 촉진하는 추세는 ‘뉴노멀’로 압축될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 인류사회를 규정해온 질서가 처한 근본적 위기상황을 지적하는 담론인데,

코로나라는 감염병이라는 가속 페달이 등장한 셈이다. 뉴노멀은 비정상의 위기 국면을 이겨내서 새로운 정상적 체제로 간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다. 언젠가 평행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바라보는 뉴노멀은 과거의 정상성에서는 없었던 비정상적 현상이 장기간 지속하면서 다시는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함의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비정상 상태의 장기화로 인한 불안정성, 불평등성, 불가측성의 특징을 지닌다. 파국적 전쟁은 아니지만, 뉴노멀의 삶은 작게는 우리의 일상부터, 크게는 국제정치를 통틀어 혼란과 혼재의 세계로 개인부터 국가, 그리고 국제체제까지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또 오랜 시간 받게 될 것이다.

세계화와 국가주의의 각자도생이 어느 쪽으로도 정리되거나 공존의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사는 세계를 당기며 부작용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바로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그동안 세계화가 구축해온 ‘초연결(hyper-connectivity)’ 사회는 바이러스를 ‘물 만난 물고기’로 만들었다. 세계화로 인한 초연결 사회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넓게 확산하지 못했을 것이다. 연결은 감염을 불러왔고, 사람들과 국가들은 이제 살기 위해 단절하고 봉쇄한다.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진정한 해결책은 아니다. 감염을 막지 못해도 죽지만, 완전한 봉쇄도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쉬운 선택이 아니다. 정확히 1세기 전에 있었던 계몽주의와 ‘사해동포주의(Cosmopolitanism)’의 세계가 민족주의의 각자도생으로 무너졌던 전례가 있다. 당시 영국의 쇠락과 미국의 고립주의는 리더십 부재를 낳았고, 국제협력은 사라졌으며, 제국주의의 식민지 수탈과 배타적 민족주의의 부활로 이어져 대공황과 비극적 전쟁을 치렀다.

미-중 패권 충돌은 곧 공멸이므로 협력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당위를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지만, 상호불신이 여전한 가운데 상대의 수용과 양보를 전제로 하는 협력과 공존을 달성한다는 것은 결코 달성하기 쉬운 목표는 아니다. 중국의 역내 리더십에 대한 확장욕심과 미국의 기존 패권유지를 위한 공세적 방어가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의 책임논쟁에 대한 미-중 모두가 상대방을 향한 책임 떠넘기기의 ‘블레임 게임(blame game)’이 치열하게 벌어진다. 특히 11월의 미국 대선이 다가오며 따라 트럼프즘 최고의 수단으로 ‘중국 때리기(China Bashing)’가 본격화하면서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중국이 지난 5월 말 양회에서 <홍콩 보안법>을 관철하고, 미국은 이에 대한 제재를 경고하고, 중국은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함으로써 갈등의 전선은 더욱 확대하고 있다.

미-중의 갈등이자 공방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공격하면, 중국이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형국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즉 미국의 공세와 중국의 방어가 반복되는 패턴을 보인다. 미국의 내부 여론이 첨예하게 분열되어 있지만, 대중 견제의 명분과 더 나아가 제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보인다. 중국의 고위인사들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피력하는 것은 과거에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것은 고쳐서 미국의 시스템에 포함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을 때려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정치경제 질서에서 축출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기에 더욱 물러설 수 없다고 말한다. 향후로도 중국이 먼저 싸움을 걸지는 않겠지만, 미국의 부당한 공격은 하나하나 받아내고 대응하겠다는 것이 입장이라고 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미국은 동맹국의 도움으로 패권 질서를 유지하고 있지만, 힘이 약해질수록 계속 끌고 가지 못할

것이지만, 중국은 경제적 가치사슬을 포함해서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체제라는 점에서 지구적으로 갈 경우, 중국이 유리하다고 인식한다.

어쨌든 현시점에서 볼 때, 영역적으로는 미-중의 전략적 갈등이 무역, 환율, 기술, 체제 우위를 놓고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지만, 물리적으로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구조를 중심에 두고 집중되는 경향을 띤다. 지구적 경쟁에서는 아직 중국이 미국과 맞서는 데는 역부족일 수 있으나, 동아시아는 지정학적으로 안방이라고 할 수 있어 팽팽한 세력 다툼이 가능하다. 양국의 세력권 경계 설정이 관건인데, 한반도, 동중국해, 중국-대만 양안, 그리고 남중국해가 그런 지점들이다. 이들을 연결하면 동아시아를 위에서 아래로 가로지르는 경계선이 생기는데, 중국은 이를 돌파하려 하고, 미국은 어떻게든 봉쇄하려 한다. 경계선을 두고 이미 갈등은 불거진 바 있다. 한반도는 사드, 동중국해는 센카쿠(조어도), 중국과 대만 양안은 트럼프 정부의 의도적 대만 쟁기기로 갈등이 일어났다. 남중국해 역시 언제든 갈등이 가시화될 수 있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여 신냉전이 현실화된다면, 패권대결의 단층선 역할을 할 것이다. 미국은 봉쇄의 경계선으로 간주하고, 중국은 뚫어야 하는 선으로 간주할 것이다.

단층선을 구성하는 4개의 충돌지점 중 가장 중요하고도 위험한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한반도다. 냉전체제가 붕괴한 지 3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잔재는 남아있고, 북-중-러와 한-미-일의 진영이 약화했지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는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서 이를 강화함으로써 비용을 치를 것인지, 아니면 경계의 자리에서 완충의 역할을 할지 기로인 셈이다. 후자가 국익과 지역의 평화에 바람직하지만, 최근 상황은 반대로 흘러간다. 남북한의 국력이 엄청난 격차를 보임에도, 통일은커녕 평화공존도 쉽지 않은 과제가 되고 있다. 탈냉전 초기의 기회를 바탕으로 분단질서를 극복하기 위해 남북이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모색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늘 벼랑 위에서 있는 것처럼 불안정하다. 2017년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어 충돌 직전의 상황까지 갔으나, 평창올림픽을 활용한 문재인정부의 중재로 2018년은 대반전을 이뤘다. 그러나 북미 간의 불신을 근본적으로 극복하지 못했으며,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긴 교착상태에 다시 빠져버렸다.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외교의 위기를 두고 '5개의 헬게이트가 동시에 열렸다'고 표현한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지정학에 의한 강대국들의 권력다툼이 항상 있었고, 분단구조는 어려움을 가중했지만, 이처럼 미, 중, 일, 러의 4강과 북한이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적은 드물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난맥을 가속하고 심화하는 코로나팬데믹은 국가를 소환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핵심 고리로 친화적 연결성을 극대화한 반면, 국가와 같은 공적 영역은 상대적으로 축소해 왔다. 국가는 이러한 자유화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취급당하며 국내 및 국제정치경제의 무대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려났었다. 세계화는 미덕으로 취급되며, 시장이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불평등에 대한 조정자로서의 국가 역할이 축소되었고,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 존재해야 할 정치 본연의 기능도 작아졌다. 국가개입 축소를 전제로 하는 신자유주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공공성 축소로 이어졌고, 국가는 시장의 패자를 돌볼 의지와 수단을 상실했다. 불평등이 구조화된 시장은 스스로 개선에 나설 리가 없는 상황에서 국가는 소수의 사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그러나 많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사적 자본은 결코 할 수 없는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의 무한자유화로 인해 부정당했지만, 국가는 세금과 복지를 통한 재분배 정책으로 약탈적 시장에 의한 희생과 왜곡을 보완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은 변함없으며, 지금 그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전례 없는 전염병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과 국민 보건은 국가의 공공성을 절실하게 필요로 했고, 세계화에 의해 쫓겨났던 국가를 소환했다. 강한 국가체제를 가진 나라들이 코로나 방역에 효율적이었던 반면에, 의료체계의 민영화 사례로 대표되는 시장에 의한 국가의 주변화로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은 속수무책이었다. 세계화라는 기준에 의한 선진국의 입지는 적어도 방역에 있어서 뒤바뀌어 버렸다. 그러나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특히 귀환하는 국가들 가운데 국민 안전을 위해 공공성을 발휘하는 착한 국가도 있지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시장을 방해했던 나쁜 국가도 섞여 있다는 간과할 수 없다. 방역의 명분으로 전시를 방불한 비상권을 발동하여 국경을 폐쇄하고, 시민의 삶을 통제해 온 국가들은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개연성이 커졌다. 국제적으로는 협력을 거부하고 배타적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함으로써 각자도생을 우선하고, 혼란과 위기의 시대 상황을 이용해 권력을 공고화하려는 극우적 권력이 날릴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방역에 성공한 한국의 모델이 특히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우연이 아니다. 국가의 무능력을 드러내며 방역에 실패한 서구와 봉쇄와 차단을 내세워 방역에 성공하면서 권위주의를 체제 우위의 증거로 내세우는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포기 없이 공적 국가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다. 한국은 독특하게도 강한 국가와 강한 시민사회가 역동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 식민지, 전쟁, 분단, 독재로 점철된 강한 국가의 역사를 가진 반면, 광주 의거에서 6월 민주항쟁, 그리고 촛불 혁명으로 이어지면서 강력해진 시민사회가 국가가 선을 넘을 때마다 매를 들었고, 공공성을 지닌 착한 국가를 소환할 수 있었다. 이번 계기로 한국의 사례가 세계에 제시하는 함의는 상당하고, 주목받을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할 부분이 있다. 먼저 서구사회가 한국을 칭찬하는 것은 진심도 있지만, 중국 때러기의 오리엔탈리즘을 위해 한국을 내세우는 측면과 한국까지 포함한 아시아 전체의 집단주의와 인권경시를 비난하는 ‘더블 오리엔탈리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소위 ‘한국 모델’은 국가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점, 그리고 봉쇄와 단절이 아닌 연결과 협력을 통한 회복이라는 점에서 확장성을 가지지만,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은 단기간 내에 재현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또한, 해결이나 종식이 아니라 여전히 불안한 진행 상황이라는 점에서 때이르고 지나친 과시는 삼가야 할 것이다.

지금 세계는 글로벌공급의 가치사슬이 위기에 직면하고, 각자도생의 방법으로 남은 죽이고 혼자만 살겠다는 사조가 확산하려 한다. 더욱이 선동에 약한 뉴노멀의 시대다. 2016년 옥스퍼드사전은 ‘탈진실(post-truth)’을 그해의 단어로 선정했었다. 객관적 진실보다 감정이나 선동이 지배하고, 페이크가 팩트를 압도하는 세상을 가리킨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브렉시트가 결정된 해에 이 단어가 선정된 것은 의미심장하다. 뉴욕타임스는 2016년 대선이 미국 역사상 감성적인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고 여러 차례 분석기사를 냈다. 절망과 분노를 일으키는 부정적 감성을 선동했던 트럼프가 긍정적 감성에 호소한 클린턴에게 승리했던 결과가 가리키는 지점도 예사롭지 않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그레삼의 법칙은 팬데믹 이후의 삶에 대한 불안을 가중한다.

11월 미국 대선까지 걸려있는 미국이 심상치 않다.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흑인이 사망한 사건이

또 일어나 인종갈등이 격화한다. 문제는 이를 선거전략으로 이용하기 위해 불을 지른다는 것이다. ‘희생양’과 ‘파랑새’의 선동이 난무한다. 문제해결보다는 ‘희생양’을 찾아 책임을 전가하는데, 내부는 흑인을 비롯한 유색인종이고, 외부는 중국이다. 그리고 권력자는 현재의 위기에 맞는 효율적인 정책을 찾기보다는 백신이라는 파랑새를 반복적으로 언급한다. 코로나팬데믹은 백신이 나올 때까지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코로나의 종식이 곧 현재의 뉴노멀이 노멀로 안정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촉매작용이 멈춘 것이지만, 거대한 시대적·세계적 추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변형 코로나의 등장도 가능하다.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가 아니라 함께 안고 살아야만 하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의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긍정적 대안들도 조금씩 부상하고 있다.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을 원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정치가들의 선동 속에 있는 파랑새일 뿐이다. 그러나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폭우는 피하면서 조금씩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피난처(Havens)’들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의 원상복구는 어렵고, 각자도생의 국내 가치사슬(domestic value chain, DVC)은 문제를 더욱 악화할 것이므로 많은 이들이 제3의 대안인 지역 가치사슬(regional value chain, RVC)을 구축하는 것이 하나의 피난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은 우선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적 협력이나 통합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넘어 국제협력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그런 능력을 지닌 중추적인 국가들이 힘을 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중 간 탈진실의 블레임 게임 속에서 프랑스, 독일, 캐나다, 한국 같은 국가들이 한목소리로 국제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미·중 패권갈등의 질서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연대해 ‘제3의 지대’를 구축할 수 있다. 저의와 조건은 없고, 능력과 신뢰는 있는 한국을 위시한 ‘중추적(pivotal)’ 국가들이 각자도생의 단절과 고립 속에 도리어 가치와 협력의 공간을 지향해야 한다. G2의 공백을 메움으로써 미·중의 갈등을 완충하는 한편, 각자도생의 와중에서 피해가 막대해질 사각지대의 국가들을 도와야 할 것이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것 역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대안이자 위기극복을 위한 피난처가 될 수 있다. 코로나팬데믹 속에서 미·중 갈등의 최전선이자, 안보포폴리즘의 전성시대인 동아시아는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당면도전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미 경험하고 있듯이 대미편승외교만으로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전혀 ‘이해상관자(stakeholder)’의 역할을 할 수 없고, 미·중의 이익에 종속되거나 반대로 효용성을 상실하여 양쪽 모두로부터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이 역내에서 이익을 관찰하는 방법은 근거 없는 북한붕괴론을 내세워 대화를 거부하고 친미편승을 통한 대북제재에 ‘전부 걸기’ 하는 전략보다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해 미·중의 패권갈등 체제를 약화함으로써 외교적 주도권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것이다. 최근 대북 전단 살포 문제로 촉발된 북한의 대남 비방과 한반도 긴장 고조는 상황을 더 어렵게 몰아가고 있다. 남북한이 대결적 구조로 갈 경우,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후퇴에서 도드라지는 미·중 갈등과 동북아 역내국들의 안보포폴리즘과 배타적 민족주의가 충돌하는 중심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후퇴는 물론이고 잠시 멈춤도 허용할 수 없다. 진전시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지어질 짐이 나날이 무거워질 것이다.

결실을 이루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겪어야 하고, 중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는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국제정치적으로는 대결구조를 통해 이익을 얻는 안보포폴리즘에 대항해 평

화 담론을 적극적으로 키우는 일이다. 평화결손의 한반도가 오히려 그 결손을 메움으로써 세계에 희망을 던질 수 있다. 우리는 공존과 평화를 지향하는 대외정책을 견지함으로써 대결을 조장하는 극우적 민족주의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공공성을 부여한 국가는 정치의 본령은 복지이고, 외교의 본령은 평화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실천해야 한다. 강자가 지배하는 흡수적 야만상태를 수용한다면야 약자를 위해 존재할 정치가 필요 없을 것이고, 생존에 대한 끊임없는 위협과 공포를 숙명으로 받아들인다면야 외교가 필요치 않을 것이다. 외교는 안보를 확보하는 가장 값싼 방법이며, 평화는 안보가 지향해야 하는 궁극적 목표다. 한국우선의 국익을 추구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을 향해, 세계를 향해, 협력과 평화공존, 민주주의 같은 가치외교의 기치를 올려야 한다. 이것이 세계가 함께 사는 길이며, 우리도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출발점은 남북 관계개선이고 종착점은 동북아평화가 될 것이다.

어쩌면 팬데믹은 인류의 삶의 가치관과 행태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효율보다 삶의 질이, 돈보다 생명이 중요해진다. 코로나가 가져온 최고의 역설 중 하나인 환경의 재생이었다. 자본의 무한확대를 당연시하던 자본주의의 수정, 그리고 국제협력의 재생으로 소위 '인간의 얼굴을 가진 세계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천박한 자본주의가 가차 없이 내뱉던 생명, 생태, 환경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는 자각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칼 폴라니는 『대전환(1944)』에서 고삐 풀린 시장이 인간과 환경을 쓸대밭으로 만들자 고통받던 인간과 자연은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반시장 운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그가 예언한 것은 시장 만능의 세계가 몰락하고 사회주의로 전환되는 것이었지만, 이번 기회에 무자비한 자본확대를 추구하는 자본주의가 인간의 얼굴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소위 '언택트(비대면)'의 세상이 확산하고, 혼돈과 불안이 일상이 되는 속에서 자본주의의 무한 욕망을 잠재우고 진정한 삶의 질을 추구하게 만드는 역설은 과연 가능할까?

코로나 이후의 세계와 교회

양권석
(성공회대학교)

1. '전쟁' 유비(analogy)의 문제: 어쩔 수 없는 선택은 선택이 아니다

“나라가 극단적인 위기에 처할 때, 공동체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지식인에게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집단의 생존투쟁을 향한 충성심이 지식인의 비판적 감각을 마취시켜 그 날을 무디게 해서 안 될 것이다. 비판적 정신의 피할 수 없는 책무는 생존을 넘어 정치적 해방을 향해 질문해야 하고, 지도력에 대한 비판을 수행해야 하고, 당장의 중요한 싸움과 상관없다 하여 너무 쉽게 하찮은 것으로 취급하거나 제쳐 놓게 되는 대안들을 다시 표현해 내는 일이다. 집단의 생존투쟁을 향한 충성심이 지식인이 감당해야 하는 이 책무를 움츠러들게 해서 안 될 것이다. 억압받는 자들 사이에도 승자와 패자가 있다. 지식인의 충성심은 단순히 집단적 행군과 결합하는 것으로 한정될 수 없다. 인도의 타고르나, 호세 마르티 쿠바 같은 위대한 지식인들은, 그들이 스스로를 민족주의자로 지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주의를 위해서 자신들의 비판정신을 약화시킬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모범적이다.”¹⁾

Edward Said

지난 몇 개월간 우리나라와 세계가 겪은 경험을 생각해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얼마나 비상하고도 예외적인 상황인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바이러스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울타리와 장벽을 넘어 엄청난 속도로 전파되면서, 매일 수 만 명의 감염자들이 새롭게 확인되고 매일 수 천 명이 죽어가는 상황을 목격해야 했고, 장례식도 없이 가족들이 애도할 수 있는 시간도 허락되지 않은 채, 불도저가 임시로 파 놓은 공간에 버려지듯 묻히는 시신들을 보아야 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조금 낡은 편이었지만, 텔레비전 화면에 비친 갑작스럽게 문을 닫은 학교와 사무실과 공장과 상점들의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아무도 걸어 다니지 않는 텅 빈 거리와 꼼짝 못하고 집에 갇힌 채 창문과 발코니를 통해 서로를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 이 팬데믹이 사람들

1) Edward W. Said, *Representations of Intellectual* (London: Vintage, 1994), pp.30-31.

의 삶에 가한 충격과 변화가 얼마나 컸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비상하고도 예외적인 고통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개인이나 집단이나 자신들의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떠올리게 되고, 그 상황을 영웅적으로 극복해 냈던 역사를 반추하게 된다. 그래서 팬데믹을 전쟁, 특히 제2차 세계 대전에 비유하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전쟁 이미지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시진핑은 중국이 바이러스에 대항한 “인민 전쟁” 중에 있다고 했고, 트럼프는 자신을 “전시 대통령”이라고 칭했으며, 마크롱도 프랑스 국민들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다고 선언하였다. 정치 지도자들과는 의도와 입장 면에서 전혀 다르다고 할지라도,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현재를 전시 상황과 비교하는 행태는 비판적인 학계에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²⁾

그런데 팬데믹의 상황을 전쟁에 비유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현재 상황을 치명적인 적들을 향하여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정신적으로 이념적으로 일치 단결하여, 애국주의적 열정으로 대응해야 하는 전쟁 상황과 관련시키는 것이,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라는 위기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는 방식인가?

우선 현상으로도 적절한 비유라고 말하기 힘들다. 희생자의 숫자 측면에서는, 전쟁과 유사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따져 보면, 전쟁과 유비될 수 이유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다. 무엇보다 먼저, 코로나19는 특정 이데올로기적 주장도 아니고, 특정 국가의 이해관계나 욕망의 표현도 아니다. 전쟁은 기존의 경제적 생산을 최대한으로 끌어 올리고 동원하게 되지만, 코로나19가 불러온 상황은 필수적인 분야를 제외한 모든 영역을 멈추어 서게 할 뿐만 아니라, 거리를 두고 서로 흩어지게 만든다. 특별히 이동성이 고도화된 지구화 시대에,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은 특정한 곳을 전선으로 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수용시설을 만들어 가둘 수 있게도 하지 않는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이번 재난을 전쟁과 비교하는 것은 현상을 바르게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의도적 장치 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게 된다.

역사로부터 현재적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유비적 사건이나 모델을 구하거나, 주어진 철학적 신학적 범주로 현재를 판단하려고 하는 역사주의의 문제와 위험성에 대해서 발터 벤야민이나 한나 아렌트를 통해서 충분히 배웠다고 생각한다. 발터 벤야민은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의 7번째에서, 중세 신학자를 인용하면서, 역사로부터 모델을 구하고 유비를 구하는 것에는 현재 일어나는 사건의 신선함을 진정하게 잃어내지 않고, 과거의 모델에 기대려는 “나태함”이 도사리고 있다고 본다.³⁾ 그래서, 이 나태함은 역사가 “문화”의 기록이면서 동시에 “야만”의 기록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들고, 역사에 기대어 현재 승자들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역사 이해라고 본다. 그래서 벤야민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나태함에 기대어 ‘어쩔 수 없음’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역사 전달과정, 곧 인간의 가치를 숙명에 굴복시키는 승자들의 역사 전달 과정과 거리를 둘 수 있어

2) SLAVOJ ŽIŽEK, *PANDEMIC! COVID-19 Shakes the World* (New York: OR Books, 2020). 지적 역사 방향은 다르지만, 전쟁의 유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인다. “전시 공산주의”(92)등의 표현에서 드러난다.

3) Michael W. Jennings, ed., *Walter Benjamin: Selected Writings*, Vol.4, 1938-1940 (Harvard University Press, 2006), pp. 391-392.

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두에 인용한 에드워드 사이드 역시 코로나19의 지구적 확산이 야기한 지금과 같은 재난의 상황에서, ‘예외적 상황’ - ‘전시상황’ - ‘어쩔 수 없는 조치와 선택들’이라는 반자동적 프레임이 작동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경고한다. “집단의 생존투쟁을 향한 충성심이 지식인의 비판적 감각을 마취시켜 그 날을 무디게 해서 안 될 것이다.” 공동체를 향한 충성심과 섬김의 정신을 최고로 갖추어야 하고, 동시에 전쟁과 같은 가장 공포스럽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공동체와의 비판적 거리를 지킬 줄 아는 지성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이드는 이 공동체와의 비판적 거리라는 것을, 『문화의 제국주의』에서는 “대위법적(contrapuntal) 읽기”⁴⁾로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공동체가 배제하고 있는 타자의 목소리들을 교차시키면서 현재를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는 현실인식과 판단과 실천을 타자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역지사지(易地思之)와 유사한 태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그 역지사지는 공동체 안의 소외되고 억압받는 자들의 처지, 곧 가난한 민중의 고통과 연대해야 한다는 본래적 의미보다는, 타협과 조정의 수단이 되고 말았다.

위에서 인용한 사이드의 글에서 보듯이, 그가 말하는 대위법은 보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확히 이해하자면, 내가 지금 생존 혹은 해방을 위해서 투쟁하는 한 공동체에 속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자신의 생존과 해방을 위해 세우고 있는 적대의 논리와 배제의 논리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 논리가 가질 수 있는 억압적이고 비 인간적인 측면들을 무비판적으로 동의하고 마는 “나태함”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크로아티아 출신의 신학자 미로슬라브 볼프는 사이드의 대위법을 한 나라로 살던 유고슬라비아가,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로 갈라져 싸우는 상황에서 이해한다.⁵⁾ 한 때 같은 나라에서 친구로 지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적대적인 공동체에 속해서 혹시라도 전선에서 서로를 만나면 총을 겨눌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때에도, 총을 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여전히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고, 자신의 사유와 판단을 중지시키거나 마비시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에 운명을 맡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우리가 많이 듣고 상상해 보았던 상황이 아닌가? 전쟁 상황, 전쟁으로 인한 분단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압력, 즉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 멜랑콜리한 힘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우리가 아닐까? 그렇게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포기하고 숙명에 자신을 맡긴 사람들의, 발가벗은 생존 그 자체를 위한 투쟁의 잔인함도 충분히 보지 않았던가? 하지만 그 야만의 역사 이면에는 결코 어쩔 수 없음에 굴복하지 않은 무수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었다. 동포의 학살을 거부하면서 봉기했던 여수의 군인들도 있었고,⁶⁾ 시민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힘, 곧 권력의 명령에 거부했던 광주에 경찰서장도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우리가 처한 선택의 갈림길도 바로 여기라고 생각한다. 전쟁 같은 상황이니까 예외적임을 인정하고 현재 공동체가 취하는 모든 조치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길과,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정말로 비판적인 사유를 잃지 않고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이 우리 앞

4) Edward W. Said, *Culture and Imperialism* (London: Chatto & Windus, 1993), pp.1-72.

5) Miroslav Volf, *EXCLUSION AND EMBRACE : A Theological Exploration of Identity, Otherness, and Reconciliation* (Nashville: Abingdon Press, 2019), p.60.

6) 주철희, 『동포의 학살을 거부한다』, 흐름, 2017.

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

아감벤은 이미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예외성의 논리에 맡겨 버렸으며, 정말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들을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가 보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대표적으로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들을 방기하고 있는 대표적 집단은 교회와 법학자들이다. 그의 교회에 대한 비판은 교회의 현재적 실상을 드러내기에 충분하다.

“나는 우리들 각자의 책임에 대해서 말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인간의 존엄을 감시의 눈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보다 중요한 책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그 중에서도 교회는, 스스로 우리 시대의 종교가 되고 있는 과학의 시녀가 됨으로써, 교회의 가장 중요한 원칙들을 철저히 포기하고 있다. 스스로를 프란시스라고 부르는 교황 아래서, 교회는 프란시스가 한센병 환자들을 껴안았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교회는 교회가 해야 하는 자비의 사역 중의 하나가 병자를 방문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교회는 신앙의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며, 이웃을 버리는 것은 곧 신앙을 버리는 것이라고 가르쳤던 순교자들의 가르침을 잊고 있다.”⁷⁾

코로나 19가 다시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대면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한국의 보수 개신교들이 아감벤의 이야기를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오히려 이웃을 포기하는 것은 곧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말을 더 기억하기를 바란다. 아감벤의 교회에 대한 비판은 인간의 죽음들이 폐기물 처리되듯 버려지는 상황을 텔레비전 화면으로 지켜보아야 했던 경험에서 온다. 그 상황에서 죽음을 소중하게 다루고 가족들에게는 애도의 시간을 안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당연히 주장했어야 했던 교회는 침묵했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아니 사실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중환자들을 위한 필수적인 의료장비가 부족한 상태에 처했던 이탈리아 같은 곳에서는 전시어나 있었을 법한 부상병 분류작업 같은 것이 벌어졌다. 장비를 사용해 살려야 하는 사람과 포기해야 할 자를 과학을 대표하는 의사들이 결정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말하자면 살리기 위해서 죽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하지만 당연히 의문을 품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 모두 침묵했다. 이 어쩔 수 없음은 어디서 연유한 것인지, 정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리고 죽여야 하는 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정말로 정당한 것인지 물어야 했지만, 전쟁 같은 위기 상황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과학이라는 이유로 그 질문을 묻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게 물어야 할 질문들이 어쩔 수 없음에 굴복할 때, 노약자에 대한 차별, 장애인 차별, 인종차별, 사회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은 이미 도처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다.

선을 위해서 선을 포기하는 것,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은 선택이 아니다. 무책임과 나태함, 아니면 자포자기의 무기력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은 당연히 해야 하는 선택을 회피하려는 핑계다.

7) Giorgio Agamben, "A Question", 2020년 8월 25일 접속,
<https://itself.blog/2020/04/15/giorgio-agamben-a-question/>

2. 노멀(Normal) vs. 뉴노멀(New Normal)

코로나19 대유행은 이전의 삶의 방식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상황을 갑작스럽게 초래하였고, 그래서 새로운 소비방식, 작업방식, 관계 방식이 갑작스럽게 실현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변화는 팬데믹이 끝나면 다시 ‘노멀’ 즉 과거의 정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삶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리고 여기에 한가지가 더 붙는다. 사실 뉴노멀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는 주장이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기술 발전과 함께,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관계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양식이라고 볼 수 있는 소비패턴이나 작업패턴의 변화가 팬데믹 이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는데, 팬데믹 상황에서 예상했던 뉴노멀이 급격하고도 매우 철저하게 실현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뉴노멀’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온 맥락들을 생각해보면, 그 말은 ‘전쟁’이라는 단어만큼 중층적인 함의를 갖는 고약한 말이다. 모든 맥락이나 연관을 다 분석할 수는 없지만, 위키피디아 등의 온라인 사전들을 참고해 보면, 뉴노멀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대략 세 가지 정도의 주된 맥락이 나타난다.⁸⁾ 하나는 2천년대 초반의 미국의 조류인플루엔자 유행과 관련된다.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대중이 공포에 사로잡혀 공황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대중들이 전염병 확산을 정상적인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고 조종하려는 노력 속에서 뉴노멀이 등장한다. 다른 하나는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와 관련해서, 자본가들과 기업가들에게 변화된 경제 환경을 설명하고, 경제사회적 약자들에게는 고용조건을 포함한 삶의 조건의 악화를 어쩔 수 없는 변화로 받아들이라고 설득하기 위해서 뉴노멀이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한 정보 기술의 발전에 따른 소비패턴, 작업방식, 서비스의 공급과 소비 형식의 변화에 대한 자본의 전망과 관련되어서 사용되어 온 뉴노멀이 있다.

그렇게 보면 뉴노멀은 한편으로는 위기와 재난의 상황에서도 인간의 삶을 지속시켜 내리는 중요한 노력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뉴노멀의 제안은 위기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분석 보다는 변화된 상황을 일단 받아들이고 감수하도록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그런가 하면, 뉴노멀의 제안은 시장의 무한 발전과 확장의 신화를 변증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노멀이 추구했던 욕망과 목표들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이제 신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그 욕망과 목표들은 계속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시되는 새로운 관계양식 혹은 행동양식이 뉴노멀이다. 그리고 수많은 기술자 과학자들이 과학의 이름으로 이러한 시장 변증의 뉴노멀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시장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변호하기 위한 뉴노멀은 많은 경우에 경제적 약자들에게는 더욱 악화된 노동조건을 감수하고, 더욱 악화된 삶의 조건을 받아들이라는 직간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부정적인 함의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다 적극적이면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뉴노멀에 대한 제안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적극적인 뉴노멀의 가능성은 당면한 위기와 재난을 바라보는 시각에 크게 의존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위기를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노

8) New Normal, 2020년 8월 27일 접속, https://en.wikipedia.org/wiki/New_normal

멸이 보여주는 일시적 이상 현상이라고 본다면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뉴노멀을 기대하기 힘들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위기와 재난을 노멀의 뿌리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는 병적 상태 혹은 병적인 정상성이 그 병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징후’라고 본다면, 뉴노멀의 제안은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코로나19의 위기 상황과 그 이후의 시대는 뉴노멀을 둘러싼 서로 다른 이해와 관심들과 욕망들이 충돌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노멀로부터 뉴노멀로의 이행에 관한 논쟁 상황을, 슬라보예 지젝(SLAVOJŽIŽEK)은 야만과 문명사이의 선택, 곧 야만적 자본주의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공산주의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공산주의의 길 사이에서의 선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⁹⁾ (지젝이 말하는 공산주의는 우리가 기억 속에 있는 전체주의적 형식의 공산주의가 아니다. 지구상의 인류가 공동의 운명을 나누고 있다는 전제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바이러스를 포함한 모든 생물 종들과의 공생에 관한 전제를 가지고 말하는 새로운 연대적 삶에 대한 전망이다.) 그런데 지젝이 그리고 있는 뉴노멀을 향한 선택의 현장에 출몰하는 야만들을 보면, 적자생존의 진화사회론 혹은 사회다윈주의(social Darwinism)에 대한 믿음에 입각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약자들은 주저 없이 포기하는 것이 살길이라고 주장하는 짐승의 얼굴을 한 야만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다. 위기와 재난을 빙자해서, 인간다움과 인간 문명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음을 이유로 내세우면서, 현재의 정치, 경제, 사회질서를 살리고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희생을 바칠 수밖에 없다는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정신을 부추기며 등장하는 “인간의 얼굴을 한 야만”¹⁰⁾과 문명의 얼굴을 한 야만도 등장한다. 이처럼 코로나 이후 시대는 노멀로부터 뉴노멀로의 이행에 관한 다양한 의도들과 욕망들이 충돌하는 과정이 될 것이며, 문명과 야만의 긴 싸움이 될 것이다. 이 과정 속에서, 정상성의 병증을 깊이에서 분석하고 현재의 삶을 넘어서는 새로운 삶의 길을 향해 뉴노멀을 능동적으로 제안하고 만들어 내야 하는 책임을 다양한 개인들과 집단들이 나누어 감당해야 한다. 한국 교회와 사회의 변화를 모색하는 에큐메니칼 운동 역시 그 소중한 책임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뉴노멀을 향한 우리의 선택은 무엇보다 먼저 노멀의 문제 즉 정상성의 문제를 깊이 성찰할 수 있는 냉정한 비판정신에서 출발해야 한다. 나아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정상의 삶과 현재의 위기의 인과관계를 냉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위기를 예외적인 상황으로 보게 만드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 의심해 보아야 한다.¹¹⁾ 그리고 그 예외성을 전제로 하는 과도한 상징적, 신화적, 정치적 해석 역시 위기의 현실을 오도 할 수 있다. 이미 팬데믹에 대한 무수한 경고들이 있었다는 것을 적어도 지금은 우리는 잘 알고 있다.¹²⁾ 그리고 그 경고들이 맥락 없이 하늘에서 내려지는 계시 같은 것이 아니라, 깊은 원인분석을 포함하는 나름의 근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의 위기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냉정하게 사실관계와 인과관계를 따지는 데카르트적 정신이 필요하다는 바디우의 생각에 일부 동의할 수 있다.¹³⁾ 전

9) SLAVOJŽIŽEK, *PANDEMIC! COVID-19 Shakes the World* (New York: OR Books, 2020), p.70.

10) Ibid., pp. 83-94.

11) Alain Badiou, "On the Epidemic Situation", 2020년 8월 27일 접속, <https://www.versobooks.com/blogs/4608-on-the-epidemic-situation>

12) 데이비드 콰먼,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 강병철 역, 꿈꿀자유, 2020; 마이크 데이비스, 『조류독감』, 정병선역, 서울, 돌베개, 2005; 데이비드 콰먼 인터뷰, 2020년 8월 27일 접속, <https://www.bbc.com/korean/news-52374381>

혀 새로운 것도 아니고, 결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그 무수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이 오히려 재난의 중요한 한 원인이 되었다면, 위기의 원인 분석에는 경고에 둔감했던 이유와 재난에 대비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한 분석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완전히 객관화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지금 그 누구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깔끔하게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개념들을 보면, 문제의 인식이 보다 근본적인 차원을 향해 급진화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래 동물을 숙주로 삼았던 병원체가 인간을 향해서 흘러 넘치는 현상(zoonotic spillover), 곧 인수공통 전염병의 지구적 확산의 원인에 대한 분석들을 보면 - 물론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원인들이 많지만 - 의심은 인류의 문명 그 자체를 문제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인류문명사는 도시화와 인간의 밀집화 그리고 인간의 이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바이러스의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를 압박하고 재촉해왔다. 그래서 이미 실크로드는 흑사병을, 서구제국주의적 확장은 스페인 독감의 대확산을 가져왔고, 지구적 자본주의의 확장과 착취구조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탈영토화하도록 만들었고, 결국 인간을 숙주로 삼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오늘의 위기가 왔다는 설명이다.¹⁴⁾

또 한가지 검토해 보아야 할 개념은 생태사회주의자들 이야기하는 물질대사 균열(metabolic rift)의 개념이다. 마이클 프리드만의 설명에 의하면, 물질대사 균열은 생태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의 연결을 끊는 경향을 말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 두 영역의 단절로 인해 야기되는 전체적 생태 순환의 교란을 말한다.¹⁵⁾ 생태 사회주의자들은 이 균열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이윤의 무한추구, 시장의 무한확장, 그리고 무한 성장을 특징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본질적 동력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결국 자본주의 문명의 인간과 세계 이해는 생태적 영역과 유리된 사회적 영역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지구상에 수많은 종들(species)과의 관계를 무시한 채 인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이다. 말하자면 모든 종들이 서로 분절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기초한 인간 이해요 세계이해다. 그리고 이 분절적 정체성 이해가 자연과 인간의 관계, 인간들 사이의 인종적 계급적 관계, 나아가 인간과 바이러스의 관계도 적대적인 것으로 만들어 내고 있다는 뜻이다.

코로나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백신이나 치료제에 희망을 걸고 있다. 말하자면, 바이러스에 대항한 적대적 대항력을 기르고 나아가 바이러스를 박멸하고 종식시킬 수 있는 길을 찾으려

13) 알랭 바디우는, 이동자유의 제한과 격리를 문제 삼는 아감벤 식의 정치적 해석에 대해서, 지나치다는 평가를 하면서 데카르트적 이성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 또한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을 참조하라. Alain Badiou, "On the Epidemic Situation", 2020년 8월 27일 접속, <https://www.versobooks.com/blogs/4608-on-the-epidemic-situation>

14) 이택광, "On the Rationale of Pure Mutualism: An Intervention into the Debate between SLAVOJ ŽIŽEK and BYUNG-CHUL HAN", 2020년 8월 27일 접속, <https://fallsemester.org/2020-1/2020/4/13/alex-taek-gwang-lee-on-the-rationale-of-pure-mutualism-an-intervention-into-the-debate-between-slavoj-izek-and-byung-chul-han>

15) Kamran Nayeri, "The Coronavirus Pandemic as the Crisis of Civilization", 2020년 8월 27일 접속, <https://www.resilience.org/stories/2020-03-27/the-coronavirus-pandemic-as-the-crisis-of-civilization/>

고 한다. 하지만 생태학자들은 다르게 이야기한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바이러스의 종식이나 박멸을 목표로 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한다.¹⁶⁾ 적대적 관계로 끝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로 들린다. 오히려 바이러스와의 새로운 관계설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누군가는 바이러스가 가하는 생명 훼손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노멸의 질서가 인간에게 가한 생명 훼손보다 정말 크다고 할 수 있느냐고 잔인한 반문을 한다. 잘못된 관계설정이 이미 바이러스가 닥치기 이전부터 생명을 훼손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결국 생태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 사이에, 그리고 인간이라는 종과 다른 생물 종들 사이에 훨씬 더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인간 이해, 사회이해, 세계이해를 향해 나아가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우리 몸이 그 몸 안과 밖에 있는 세균과 미생물들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 종들과 사회적 관계를 넘어 생태적 관계를 나누고 있다면 그 때 우리는 인간을 어떤 모습으로 그려야 할까? 피부와 뼈와 장기로만 이루어진 인간이 아니라, 내 몸 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세균들과 바이러스들로 이루어진 인간이라면, 그 인간은 어떤 모습일까? 한 생명이 아니라, 생명체들의 집합이요 관계라면, 우리는 누구일까?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뉴노멀을 찾는다는 것은 인간문명이 발전시켜온 인간과 세계 이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포함하는 것이며, 새로운 인간과 세계이해를 표현해 내는 일이라고 본다. 교회와 신학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정상 질서를 위해서 말해왔던 신학적 인간학을 그 근본에서부터 재고하는 일을 통해서 뉴노멀을 말해야 할 것이다. 물론 뉴노멀은 인간학에 대한 새로운 제안에 국한될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위기 상황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정상적이라고 여겨왔던 것들의 병든 실상을 폭로하고 지금까지 몰랐거나 혹은 모르는 척했던 진실을 열어 보여주는 계시적 역할을 한다. 현재의 위기는 우리가 그 틀 안에서 살아왔던 정상성이라는 것이 심각한 병적 상태에 있음을 알려주는 표시 혹은 징후다.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질서의 문제도 이 위기 상황에서 그 실상이 드러나게 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질서가 정말로 생명을 살리고 위기와 재난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는 질서인지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비판적 질문 위에서, 뉴노멀을 향한 새로운 선택을 만들어야 한다.

3. 대면(tact) vs. 비대면(Untact)

노멸과 뉴노멀을 차이를 설명하는 가장 구체적인 언어가 택트(대면)와 언택트(비대면)다. 그래서 뉴노멀은 곧 언택트 사회가 보여주게 될 관계 양식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 언택트 관계양식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라는 형식으로 이미 상당수준에서 일상화되고 있다. 하지만 뉴노멀에 관한 전망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언택트 사회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 속에도 수많은 숨겨진 의도들과 은폐된 욕망들이 작동하고 있다.

우선 비대면 관계 즉 언택트 사회를 순식간에 지배적인 현실로 만들어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숙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의 보건 담당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¹⁷⁾

16) 최재천, 최진석, “코로나 19와 한국의 미래”, 2020년 8월 25일 접속,

<https://shindonga.donga.com/3/all/13/2050482/1>

17) ‘사회적 거리두기’란? 2020년 9월 8일

는 손씻기나 마스크 착용보다는 한 층 적극적인 방역 대책으로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그래서 대면 접촉 시 거리를 두는 것뿐 아니라 휴교, 재택근무, 모임 취소 등의 개념이 포함된다. 하지만 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설명들을 보면 봉쇄나 이동제한과 같은 강경한 조치들에 대한 예상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용어의 조어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물리적(physical) 거리두기는 맞지만, 사회적(social) 거리두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거리두기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동시에 물리적 공간적 거리두기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사회적 소외와 고독을 막기 위해서 개인간에는 물론이요 집단간에도 사회적인 보살핌 혹은 친밀감이 대면(tact) 시대 보다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소통 없이 방치된 거리두기라는 관계의 단절은 바이러스만큼이나 위협적일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 보다는 “공간적 거리두기(spatial distancing)와 사회적 친밀감(social closeness)”¹⁸⁾이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서로 보살피고 관계를 나누는 측면을 가리키는 “사회적”이라는 말과 물리적 혹은 공간적 거리를 가리키는 “거리두기”라는 말의 위치를 바꾸어, “거리를 둔 보살핌” 혹은 “거리를 둔 사귄(distant socializing)”¹⁹⁾과 같은 개념들이 제안되고 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관계나 소통의 중지 혹은 사회적인 것의 정지가 되어서는 방역대책도 될 수 없고, 정당한 위기 대응책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다. 그렇게 보면, 코로나로 인한 위기 상황은 서로 긴밀하게 관계하고 보살피는 사회성의 측면과 공간적, 물리적, 육체적 거리두기라는 외관상 이질적으로 보이는 두 차원을 새롭게 결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통이 말해 온 타자 이해 혹은 타자와의 관계 이해에 대해서 상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하느님 앞에서는 어떤 공통된 가치기준으로 약분하거나 환산하거나 환원하여, 다른 것으로 대체 가능한, 인간이나 생명은 하나도 없다. 마르틴 부버식으로 말하자면, 나와 타자의 관계가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를 이룰 때, 다시 말해, 타자성의 강렬함을 유지한 채 서로 만나고 관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는 내가 되고, 타자는 그것이 아닌 너가 될 수 있다. 결코 나의 것으로 환원될 수 없는 거리를 유지한 채 나누는 나와 너의 지극한 사랑의 관계다. 이 관계 안에서 나는 비로소 그것이 아닌 ‘나’가 되고, 너 또한 그것이 아닌 ‘너’가 된다. 그래서 부버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인간의 창조는 하느님이 인간과 거리두기를 한 것이라고 하였다.²⁰⁾ 타자를 향한 지극한 사랑과 타자와의 거리두기는 이미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성서적 전통과 신학의 관계론들이 이런 것이었다면, 교회가 거리두기를 받아들이고 비대면 사회의 뉴노멀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처럼 보인다. 하지만 한국 개신교는 대통령 앞에서 한국 사회를 향해서 죽어도 대면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

접속<http://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0168>

18) Thomas Abel and David McQueen, “The COVID-19 pandemic calls for spatial distancing and social closeness: not for social distancing!”, in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Health* (2020) 65:231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7111296/>

19) Jamil Zaki, 2020년 8월 25일 접속, <https://news.stanford.edu/2020/03/19/try-distant-socializing-instead/>

20) Maurice Friedman, “Dialogue, Speech, Nature, and Creation: Franz Rosenzweig’s Critique of Buber’s *I and Thou*”, in *Mordern Judaism*, May, 1993, Vo.13, No.2 (May, 1993), pp.109-118, 특별히 113쪽을 보라.

국교회의 반응을 그냥 생존 그 자체를 위한 몸부림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분명히 지나친 측면이 있다. 오히려 한국 개신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교회론 혹은 관습적인 교회에 대한 이해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선 전통적 교회론은 택트(대면)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담고 있다. 하느님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택트 가능한 육신을 갖춘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하느님이 아들을 육화된 몸으로 세상에 보낸 것처럼, 하느님의 성령은 하느님의 백성들을 몸으로 서로 접촉(tact)하는 몸의 공동체를 만들어 냈으므로, 그 화육의 역사를 지속한다. 그래서 예수는 화육하신 하느님이지만, 바울에 의하면 집단적인 택트로 이루어지는 몸으로서 교회의 신자들이야 말로, 하느님 영의 성전이다. 이처럼 전통적으로 이해한 교회는 물리적 몸을 동반하는 접촉(택트)을 전제하는 교회론에 입각해 있다. 참여자 각자의 몸, 장소와 건물, 그리고 일정한 경계를 갖는 회중, 그리고 물질적인 현존의 강조해 온 전통적 교회 이해가 하루 아침에 바뀌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바꾸는 과정에서 버려야 할 것과 얻어야 할 것, 극복해야 할 것과 회복해야 할 것을 아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위기의 경험을 통해 교회됨의 새 길을 찾는 일인데,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물려 받은 전통적 신학적 유산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도전을 필요로 하는 일이 될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통적인 교회론과 예배에 대한 성사적(sacramental)인 이해가 매우 강해서, 대면의 성사적 과정을 통해서 성사의 물질이 실재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보는 천주교회 같은 곳이 비대면 예배를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울 것 같은데, 현실은 정반대다. 성찬이나 세례를 단순히 기억이나 기념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개신교 교회들이 비 대면 예배를 받아들이는 것을 훨씬 더 주저하는 모습이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전통적인 교회론이나 예배 신학의 차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관습적 교회론이나 예배 신학의 차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자 대중의 교회론과 예배에 대한 이해는 교회 건물, 회중들 사이에서 나누는 인간관계, 성직질서, 그리고 그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이 나누고 있는 목회적 관계, 교회 안에서 문제를 판단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 교회가 교회 밖의 공동체와 맺는 선교적 관계 등 다양한 요인들이 현실 교회의 교회론과 예배 이해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되어 온 그와 같은 관습적 교회론은 실질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뉴노멀로 가기 위해서는 노멀의 상황을 지배해 온 교회의 관행들 다시 말해 지금까지 한국교회 내부를 지배해 온 관계 형식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비대면이라는 뉴노멀의 수용을 쉽게 결정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은, 전통적인 교회론이나 예배 이해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비대면” 혹은 “언택트” 라는 개념 자체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우선 언택트 즉 비대면이라는 말이 만들어져서 사용되어 온 과정을 살펴보면, 그것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있기 훨씬 이전부터 경영전문가들이 사용해 왔던 용어다. 새로운 정보기술 플랫폼들이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접촉 없는 비대면 형식으로 변화되고 있는 경향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조된 말이 ‘언택트’다. 소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품을 소비하고 유통하는 관계가 가장 지배적인 관계형식이다. 그런데 이 지배적 관계 형식이 점점 더 비대면의 관계가 된다면, 사회적 관계나 개인들 사이의 관계 역시 추세를 따라 갈 것이고, 그래서 언택트(비대면) 사회가 점차 구체화되어 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소비자본주의가 뉴노멀로 생각하는 비대면 사회가 전망하는 인간 관계는 쉽게 동의하기 힘든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기업 쪽에서 비대면 사회를 예찬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사람은 자신들의 소비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연결(connection)은 원하지만 인격적 상호작용(interaction)과 소통(communication)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²¹⁾ 그래서 불필요한 인격적 상호작용이나 소통이 없어도 관계는 가능하다는 본다. 그렇다면, 자본이 말하는 비대면(언택트) 사회는 "연결"은 증가하지만,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소통"은 점점 감소하고 축소되는 사회다. 그런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상호작용 없는 연결 사회 혹은 소통 없는 연결 사회를 소비자 중심 사회라고 말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람 중심"의 사회라고 선전한다는 점이다.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연결을 가장 정확한 최적의(optimal) 방식으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사람 중심적이고 그래서 비대면 사회로의 변화는 사람중심의 새 시대를 향해 가는 길이라고 찬양하고 있다.²²⁾ 하지만 이렇게 상호작용 없고, 소통 없고, 감정적 교차가 없는 연결 사회가 정말로 사람중심의 사회가 될 수 있을까?

적어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 봉착하기 전까지는 "비대면 소비" 혹은 "비대면 사회"라는 말은 아직은 다분히 잠복적인 표현이었고, 대중들에게 그렇게 친숙한 표현도 아니었다. 하지만, 팬데믹과 함께, "비대면"의 구호는 훨씬 더 공격적으로 바뀌고 있다. 사회적 논의나 합의과정의 전개에 따라서 야기되는 변화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변화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대면(접촉) 없는 사회"(a contact-free society)를 향해 현재 사회를 개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표현이 현정부의 "디지털 뉴딜(Digital New Deal)"이라는 말이다.²³⁾ 소비자와 인격 혹은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의심없이 자연스럽게 동일화 될 수 있는 것인가? 철저하게 탈맥락화하고 탈영토화하여, 소비 욕망으로 객관화되고 정체화된 소비자가 정말 살아있는 인격일 수 있을까? 감정적 혹은 정서적 교감도 없이, 상호작용도 소통도 없는, 연결이 지배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성가신 상호작용은 피하는 사회, 타자성의 강렬함이 사라진 사회, 문제와 갈등의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가능성이 사라진 사회, 그래서 "변증법이 사라진 사회"²⁴⁾는 어떤 사회인가? 소비 관계에서 자신의 존재와 정체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차별받는 자들, 지금도 소비 사회에 의해서 존재를 부인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대면 사회는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것인가?

비대면을 사람중심으로의 변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중심을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가 디지털 뉴딜을 말하는 것이 상당히 자연스러운 연결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과 "뉴딜" 혹은 "비대면"과 "뉴딜"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보이지 않는다. 뉴딜은 자본주의의 위기, 곧 공황에 직면하여, 자본이 취하는 어찌면 다분히 반 자본주의적일 수 있는 정책이다. 오히려 노골적으로 기업들의 정상화를 위한 긴급지원에 우선하는 것이 자본다운 실천 행태다. 그런 점에서, 디지털 뉴딜, 혹은 그린 뉴딜에서 말하는 뉴딜은, 모든 사회계급들을 망라하겠다는

21) Samsung SDS Communication Team, "It Is The Age Of "untact", Add A Touch Of Comfort In Shopping Alone", 2020년 8월 26일 접속,
https://www.samsungsds.com/global/en/news/story/1203267_2881.html

22) Ibid.

23) 정부 24, "디지털 뉴딜, 코로나 이후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합니다!" 2020년 8월 25일 접속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2208307>

24) Antonio Negri, *Time for Revolution*, trans. Matteo Mandarini (New York: Continuum, 2003), 41..

이지, 그리고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관심을 잃지 않겠다는 표현일 수 있다. 하지만, 비대면 관계를 향한 디지털 기술이 정말로 그런 "뉴딜"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을지는 분명히 의심해 보아야 할 문제다.

이와 같이 교회 안과 밖에 교회로 하여금 언택트의 제안을 쉽게 수용하거나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언택트 사회라는 뉴노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일까? 어쩔 수 없는 수용으로서 뉴노멀이 아니라, 보다 건강한 뉴노멀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노멀의 병중인 상태를 보여주는 징후로 읽는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가 한국 교회가 정상적인 것으로 알아왔던 교회의 삶에 내재한 심각한 문제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뉴노멀을 향한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언택트 질서를 진정으로 사람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질서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경험한 가장 심각한 위기는, 하느님과 우리 이웃들과 상통하며 서로를 위해 대신 기도하는 가장 거룩한 행위라고 여겨왔던 예배가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 아니 좀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폭력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로 나타났다고 본다. 노멀의 교회를 지배해 온 교회 밖의 세계나 공동체를 바라보는 관점, 다시 말해 교회가 타자를 바라보는 관점과, 그 타자들과 관계 맺는 방식에 문제가 없었다면, 그와 같은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예배를 매개하는 매체에 관계없이, 그 예배는 위기의 상황에서 보다 깊이 연대하고 섬기고 나누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교회의 예배가 가해 행위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노멀의 교회가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목회적 관계구조 그리고 선교적 관계 형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반증한다. 성직자와 건물을 중심으로 위계적으로 사람을 모아서 힘을 강화하는 구조, 그래서 목회적 관계와 선교적 관계를 성직자와 교회 건물 중심으로 독점해 온 구조, 하느님 나라를 위한 선교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교회 그 자신의 힘을 확장하기 위해서 목회와 사역과 선교를 종속시켜 온 과정이 만들어 온 위기였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뉴노멀의 언택트 시대를 향한 교회의 변화는 단순히 새로운 매체의 기술적 실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교회론적 대안을 찾는 노력이어야 한다.

사실 온라인 교회론에 관한 논의는 이미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교회론 논의 가운데 주목할 만한 내용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먼저, 노멀의 성직자 중심주의적이고 건물과 장소 중심주의적인 교회를 더욱 널리 선전하고 강화하는 방식의 언택트 기술 사용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다.²⁵⁾ 그런 언택트라면 이미 큰 교회들이 충분히 잘 활용하는 언택트이며, 그래서 뉴노멀이라고 하기도 힘들고, 작은 교회들에게는 불가능한 뉴노멀일 수 있다. 하지만 제도교회의 무심한 질주를 바라보면서, 기성교회의 성직자중심주의를 바라보면서, “기차야 멈춰라 내리고 싶다”²⁶⁾는 주문을 외웠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헤아려야 한다. 가나안 신자를 포함

25) Heidi A Campbell, ed., *The Distanced Church: Reflections on Doing Church Online*, p.75.
2020년8월 24일 접속,
<https://jiliflc.com/wp-content/uploads/2020/06/Distanced-Church-PDF-landscape-FINAL-version.pdf>
f, 기성 현장 교회의 활동을 중계 방송하는 형태의 온라인 교회는 일종의 매체 성직중심주의(media clericalism)를 추구하고 있다고 혹평하기도 한다.

해서 노멸의 교회에 지친 신자들의 호소를 들어야 한다. 노멸의 교회의 뿌리 깊은 병증을 끊임 없이 증언해 온 신학적 혹은 반신학적 실천들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온라인 교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언택트 시대의 뉴노멸을 만들어 가는 온라인 교회는 노멸의 교회론을 극복하는 새로운 대안의 교회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거의 전통적인 교회와 메시지를 온라인 상으로 번역하는 온라인 상에서도 계속되는 노멸의 교회가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새로운 교회적 실천과 행동이 가능한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²⁷⁾

“온라인 교회”, 혹은 “거리두기하는 교회”(distanced church) 등으로 불리는 언택트 시대의 교회론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는 교회를 물리적 공간이나 규모를 갖춘 회중들의 모임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질, 곧 상통 혹은 교통(communion)과 친교의 밀도로 이해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언택트 매체와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되 그것들을 상호작용이나 소통도 없고 어떤 친밀한 나눔도 없고 연대적 실천도 없는 연결이 아니라, 신자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교회와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을 노멸의 교회에서 보다 훨씬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⁸⁾ 지금까지 전자매체들이 사회적 관계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면, 그리고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도전을 주고받는 관계를 배제하고 전혀 불편함이 없는 연결만을 추구해 왔다면, 온라인 교회는 이 전자 소통 수단들을 진정한 대화와 소통과 상호작용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교회가 건물이나 회중 그 자체가 아니라 정말로 서로 상통하고 상호작용하는 관계로 이해될 수 있다면, 그래서 교회와 예배가 형식면에서 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새로워질 수 있다면, 대면과 비대면의 모든 소통 수단들이 그와 같이 새로운 교회적 실천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이 충분히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언택트 시대의 예배의 문제는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과거의 예배를 온 라인으로 번역하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신자들 사이에 그리고 신자들과 지역 사회 간의 보다 밀접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예배와 교회의 실천을 실험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교회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위기를 자신과는 무관한 원인으로부터 왔다고 보는 단일한 인식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26) Ibid., p. 46.

27) Ibid., p. 62.

28) Ibid, p.28, 68.

논찬

코로나19 시대의 “교회됨”

홍인식

(한국기독교연구소)

들어가는 말

코로나19 시대를 언급하고자 할 때 등장하는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있다.

첫째는 팬데믹(pandemic)이다. 코로나19는 진정한 의미에서 팬데믹이다. 단순히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발생하였다는 의미를 넘어서 인간의 모든(pan)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의 분야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 구석구석까지 치밀하게 침투해 들어와 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문제를 떠나서 그와 동행하고 동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는 ‘그 이후’(post)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인류의 삶에 ‘함께’ 하는 현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from post to with, 김준형 10쪽)

두 번째 단어는 거리두기(distancing)이다. 거리두기는 결과적으로 대면 혹은 비대면이라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는 우리로 하여금 ‘가까움’보다는 ‘거리두기’가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접촉과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할 때 코로나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관계성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거리두기와 그리고 대면과 비대면의 개념들은 정치와 경제계에도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게 만들었지만 특히 개신교회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다. 함께 모여서 크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익숙해 있는 개신교인들에게는 비대면 예배와 거리두기는 매우 생소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 그들의 신앙에 대한 도전과 탄압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거리두기와 대면 그리고 비대면의 상황은 교회와 예배에 대한 많은 토론을 야기 시켰다. (양권석, 20~21쪽)

셋째는 ‘새로운 정상’, 뉴노멀(New Normal)이다. 지금까지 인류가 지녀왔던 정상에 대한 개념이 도전 받고 있다. 코로나19는 인류가 정상(normal)이라고 여겨왔던 많은 것들을 새로운 정상

의 기준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 양권석은 뉴노멀은 위기와 재난의 상황에서도 인간의 삶을 지속시키려고 하는 노력과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자칫하면 원인 분석보다는 위기를 극복하여 노멀의 욕망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을 흐를 위험이 있음을 지적한다. (김준형, 6~7쪽/양권석, 16~17쪽)

넷째는 생태(Ecology)이다. 코로나19의 원인을 분석하는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것이 생태와 기후위기이다. 생태의 파괴가 결국 코로나19의 팬데믹 사태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서 생태 파괴의 주범으로 세계화 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폐해와 인간의 끝없는 욕망에 대한 경고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김준형, 11쪽/ 양권석, 17~18쪽)

이제 우리에게 현실적인 삶의 정황으로 등장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서 우리의 사회는 어떻게 변화될 것이며 특히 변화된 사회에서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논찬자로서 두 분 발제자의 글과 위에 언급한 4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의 글을 전개해보려고 한다.

코로나시대의 사회와 교회

코로나시대의 사회와 교회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 혹은 대책을 생각해보고자 하는데 오늘 발표된 김준형과 양권석의 논문은 매우 유용하다.

김준형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세계질서의 변화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진단하고 있다. 그는 세계화는 자본주의의 클라이막스와 같은 것으로서 민주주의, 자유무역 그리고 팍스 아메리카나에 의해서 지탱되어왔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같은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는 그 자체의 모순으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시장에 대한 믿음이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고 따라서 시장의 이상화 현상은 시민사회의 힘을 약화시킴으로서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후퇴하게 만들었다. (관객민주주의, 김준형, 5쪽) 불공정한 부의 분배로 인해 발생하는 빈부의 차이, 강요된 희생과 불평등 등 자본주의 모순이 극대화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가 자랑하는 국제사회의 안정성도 크게 흔들리는 시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질서의 위기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오늘의 인류에게 세계화 현상이 없었다면 코로나-19는 결코 팬데믹 현상으로 발전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로 하여금 신자유주의적이며 시장 중심의 세계화된 정치경제 체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제기하고 있는 뉴노멀은 유용하다.

양권석은 그의 글을 통하여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야기된 뉴노멀에 대한 관심은 “인간문명이 발전 시켜온 인간과 세계이해에 대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인간과 세계 이해를 표현해 내야 하는 과제”를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양권석, 22쪽) 뉴노멀은 지금까지 교회와 신학이 정상이라고 생각해 오고 있던 신학적 주제들에 대하여 의문

을 품고 새로운 측면에서 새로운 해석을 그 근본에서부터 재고하도록 만들고 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극히 정상이라고 믿고 왔으며 또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행태에 대하여 정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문을 열게 만들었다.

신학적 뉴노멀의 등장은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어왔던 교리 체계에 대하여 그 절대성에 의문을 갖게 만든다.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사회 구성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교회 지도자들의 ‘생명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 ‘예배드리다 코로나에 감염되어 죽는 것은 순교다’ 등의 발언은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로 말미암아 한국 사회의 개신교회를 향한 인식은 “가까이 하기 싫은 사기집단”이라는 것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코로나19는 한국 사회와 교회에게 위기를 가져다주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게 만들었다. 그 뿐만 아니라 진지하고 깊이 있게 ‘교회됨’에 대하여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과연 한국 교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그 존재를 지속할 수 있을까? 지속한다고 하면 그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코로나19와 함께하는 교회(Christian Church with and within COVID19)

김준형은 글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한다. “팬데믹은 인류의 삶의 가치관과 행태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효율보다 삶의 질이, 돈보다 생명이 중요해진다. 천박한 자본주의가 가차 없이 내쳤던 생명, 생태, 환경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는 자각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소위 ‘언택트(비대면)’의 세상이 확산하고, 혼돈과 불안이 일상이 되는 속에서 자본주의의 무한 욕망을 잠재우고 진정한 삶의 질을 추구하게 만드는 역설은 과연 가능할까?” (김준형, 11쪽)

양권석은 “교회가 건물이나 회중 그 자체가 아니라 정말로 서로 상통하고 상호작용하는 관계로 이해될 수 있다면, 그래서 교회와 예배가 형식면에서 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새로워질 수 있다면, 대면과 비대면의 모든 소통 수단들이 그와 같이 새로운 교회적 실천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이 충분히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코로나19가 기독교회에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양권석, 24쪽)

포스트 코로나19 교회

이제 우리는 코로나19와 함께 하고 코로나19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나는 본 논찬을 통하여 코로나19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교회의 형성에 대하여 몇 가지 기본적인 원리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제안은 노멀에서 뉴노멀로 향하는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나는 본 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의 시대에서 ‘교회 됨’의 특징을 다음 몇 가지로 제안해보고자 한다. 교회됨은 무엇을 의미할 수 있을까?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존재할 때 인류에게 존재의 의미와 정당성을 줄 수 있을까?

1. 영성공동체 spiritualliyty centered community

먼저 나는 교회를 영성 공동체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데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우리에게 준 교훈 중의 하나가 전문성이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무엇보다도 영성적 전문 공동체임을 다시금 분명히 해야 한다. 서로 떡을 떼고 교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는 공동체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 교회는 영성적인 면에 있어서 전문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2. 일하지(바쁘지) 않는 교회 no busy community

너무 많은 일을 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교회는 일중심의 삶을 견지해 왔고 또 강조해 왔다.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너무 바쁘다. 교회 내부의 일이 너무 많았다. 일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교회 일로 분주한 삶을 보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교인들은 세상 안에서 일 할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을 갖지 못했다. 이것은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깥세상과 단절을 의미하기도 했다. 이제 우리의 눈을 교회 내부가 아니라 교회 밖으로 돌려야 한다.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3. 저비용구조의 교회 low cost community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은 비대면의 사회를 초래한다. 이제 많이 모이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위험시된다. 사람들과의 만남은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 혹은 경계의 대상으로 변한다. 많이 모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적을수록 좋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한국 교회는 많이 모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수적인 부흥이 복이 아니라 자칫하면 저주로 변할 수도 있다는 상황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이제 수적인 면에 치중하고 수적 성장에 교회와 목회의 목표를 두는 것은 끝났다. 이제는 소수의 모임이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다. 수의 감소는 직접적으로 교회의 재정구조의 변화로 연결되어질 것이다. 건물과 시설에 투자하는 건물과 일중심의 고(高)비용구조를 벗어나서 교회의 재정적 투자가 삶의 현장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저(低)비용구조의 교회와 목회가 되어야 한다.

4. 평등한 교회 structureless and hierarchy-less community(equity)

양권석은 “기성교회의 성직자중심주의”에 “지친 신자들의 호소를 들어야 한다.” (양권석, 14쪽)고 말한다. 그렇다. 제도적 교회 그리고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숨 막힐 것 같은 위계질서는 교회로 하여금 사회변화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교회 지도자(목사와 장로)들의 의견과 일반 교우들의 의견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여론 조사들을 통하여 보게 된다. 많은 가나안 교인들의 발생은 교회내의 권력체계에 환멸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위계질서에 의한 억압, 통제와 차별이 사라지고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됨을 경험하는 평등한 교회를 꿈꿔 본다.

5. 부름 받아 선택된 공동체 교회 selective community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놀라운 성장을 거듭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코로나19 이후 드러난 한국 교회의 모습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다. 과연 교회가 성장한 것인가? 아니면 무엇이 성장한 것인가? 한국 사회에서 소위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한국 인구의 80%는 교회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본다. 마치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꺼려한다.

왜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일까? 오직 성장만을 추구했던 우리는 교회를 아무나 오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오게 하였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러한 성장 중심 행위의 결과가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는 아무나 오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정의와 평화와 그리고 생명의 가치를 자신의 삶의 가치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아무나 오는 곳으로 만들었다. 교회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안으로는 폐쇄적인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교회는 밖으로는 열린 공동체이다.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차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의미에서 그렇다.

6. 역사적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는 교회 Following historical Jesus Church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 교회의 몇몇 지도자들의 행위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사람들은 교회의 발언과 행위를 이해하지 못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소통의 문제일까? 소통의 문제라면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쉽게 말하면 교회의 언어와 사회의 언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가 교리 안에 닫혀 있기 때문이다.

마크스 보그(Marcus Borg)는 그의 저서 “그리스도교 언어를 말하다”에서 교회의 언어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는가를 지적한다. 그리고 탈색된 기독교 언어를 현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되살리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한다. 코로나19 현상은 한국 교회로 하여금 교리적 예수를 넘어서서 역사적 예수의 삶을 탐구하고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한다. 그러므로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교회는 역사 현장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예수를 닮아가고 그의 마음을 품고 그의 역사적 발자취를 따라감으로써 오늘의 역사의 현장에서 예수를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7. 해방적 교회; 약자를 위한 우선적 선택을 함으로서 약함의 능력을 보이는 교회 Liberational Church, preferential option for poor and weak church.

한국 교회는 급격한 수적 성장으로 인하여 어느덧 한국 사회에서 힘 있고 영향력 있는 집단이 되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여론주도의 집단이 되었다. 그러는 사이 교회의 선교는 약함의 선교에서 강함을 바탕으로 하는 선교로 변모해 갔다. 이제 한국 교회는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강력한 집단이 되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한국 교회의 위기가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코로나19는 강함의 한국 기독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었다. 예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이 시점에서 코로나19와 함께 하는 교회는 다시금 본래 예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다. 그것은 신학의 변화를 요구한다. ‘위로부터의 신학’에서 ‘아래로부터의 신학’으로 방향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가난하고 약한 자를 향한 우선적 선택을 하는 신학으로 전환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인류에게 혼란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기회를 주고 있다. 지금까지 인류가 소홀했던 가치관들에 대하여 돌아보게 만든다. 혼돈과 희망이 혼재된 세상에서 기독교는 인류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 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마태 5:13~16)

논찬

코로나19와 뉴노멀, 그 진단과 성찰

송진순
(이화여자대학교)

COVID19 발생 8개월, 전세계적으로 2,800만명의 누적확진자와 90만명의 사망자를 기록한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를 전망한다. 오늘 발표된 김준형 원장님과 양권석 신부님, 두 분의 원고는 코로나19의 광풍 속에서 한국 사회가 놓인 좌표를 그려냄으로써 코로나19로 촉발된 이 사회의 병증을 진단하고 새로운 전망에 대한 안내서로 제시되었다. 나아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가 점차 후퇴하고 거부할 수 없는 또 다른 전환을 맞이하는 과정을 정치사회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읽어냄으로써 한국사회와 교회가 지향하고 도약해야할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하다. 두 편의 글이 전하는 무게와 고민에 공감하면서 또 다른 세계로의 진입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음을 목도하게 된다. 시대에 대한 정확한 통찰과 깊이 있는 글로 본 기획연속 토론회의 서막을 열어주신 두 분에게 감사드린다.

<코비드19 팬데믹과 세계질서>에 관하여,

본 고에서는 민주주의, 자유무역, 팍스아메리카나를 축으로 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서서히 퇴보하는 과정에서 세계의 변화 동향을 묘사함으로써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역할을 고찰한다. 동시에 코비드19로 소환된 국가권력과 선동에 취약한 뉴노멀 앞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인간다운 삶의 회복이라는 묵직한 과제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먼저 본고는 세계질서 내 한국 사회의 위치를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퇴보에서 발견한다. 이는 정치적으로는 시민사회의 몰락과 실질적 민주주의의 후퇴에서,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의 지나친 성공이 불러온 자체 모순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한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불러온 불평등, 부의 양극화, 이에 따른 각자도생의 삶은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급기야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몰락까지 전망하게 한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패권주의와 국제기구 및 다자협력체제가 동력을 잃고, 중국의 부상과 함께 미국이 자국우선주의 정책으로 선회한 것이 유럽을 포함한 세계 질서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여기서 촉발된 미국과 중국의 지속적이고 첨예한 갈등은 다름 아니라 동북아를 중심으로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 나아가 그 태풍의 핵에 한반도가 있다는 점을 보

여준다.

한국 전쟁 이후 탈냉전을 거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지난(至難)한 노력들이 이와 같은 미국과 중국의 긴장 상태와 한국 사회의 정치 및 경제 체제의 혼란과 갈등 속에서 좌절되고 있다. 근자의 이뤄진 해빙 분위기도 잠시, 남과 북은 다시금 긴장과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본고의 지적대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4강과 북한이라는 5개의 헬게이트가 열린 상황에서 한국 사회의 외교적 행보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비드19의 출현은 새롭게 부상한 위기가 아니라 세계 내 정치 갈등과 분열 그리고 경제체제의 부작용을 가속화하는 촉매제라는 것이다. 지금의 위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건강과 안전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마스크 대란, 사회적 거리두기, 타인에 대한 경계와 혐오 등, 일상이 멈춤으로 인해 그간 잠재되었던 이 사회의 병폐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 이 사회의 민낯을 마주하게 한다. 그것은 불평 등, 고용 불안정, 잉여가 되는 삶을 비롯하여 야만의 얼굴을 한 전지구적 자본주의 세계, 그 학적 세계에 대한 고발이다. 문제는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는 이 시대의 클리셰가 실제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파괴하고, 코로나 공포로 인한 타인에 대한 무비판적 배제와 혐오가 난무하는 가운데 배타적 민족주의와 포퓰리즘의 선동 역시 가속화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한 국가권력을 도모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필연성을 모두의 희구로 설득해가면서 거버넌스의 정치를 구축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과제로 주어졌다.

지금은 탈진실이 진실처럼 승양 되는 시대, 포스트 투루스(Post-truth) 시대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상의 공론장은 다양한 소리들이 공명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다. 그러나 동시에 공론장은 가짜뉴스의 범람과 정치사회의 극단적 양극화를 심화시킴으로써 현재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한다. 오히려 사회 분열과 갈등을 가중시키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위기의 시대, 소환된 국가권력은 본고에서 지적한 대로, 사적 자본이 할 수 없는 공공재를 제공함은 물론 조세제도, 복지정책, 의료지원 등 전방위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권력 집중 현상이라든가 더 큰 난제로는 극우 권력의 선전과 선동으로 인한 사회 분열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한 대안, 혹은 긍정의 가능성으로서 한국 사회의 특수성, 즉, 강한 국가와 강한 시민 사회에 대한 언급은 매우 적실하다. 우리 안에는 이미 사회적 네트워크와 호혜적 삶에 대한 욕구, 그리고 시민운동의 전통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려스러운 점은, 이전 시민사회가 시장에 논리에 맞서는 한편, 한반도 평화체제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해왔으나, 그마저도 신자유주의의 질서에 재편되는 과정에서 시민의 힘이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지금은 빈곤 자체보다는 상대적 박탈감과 불평등이 더 문제시되는 사회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몰락은 좌파 성향의 저항적 방식의 시민 운동과 연대하기 보다는 우파 성향의 포퓰리즘과 민족주의에 손을 들어 주었고, 급기야 공론장에 대거 출현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한국사회의 상황만은 아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지적대로, 현재 일고 있는 정체성의 정치는 구체적인 집단에 눈을 돌려 그들의 부당함에 주목하고 공정의 깃대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했다. 그러나 이 사회에서 정체성 집

단이 요청하는 인정의 대한 권리는 대개 협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¹⁾ 다시 말해 모두를 위한 정치가 모두를 위하지 않는, 소통 불가의 정치가 될 가능성을 배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지금의 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서로가 연대할 수 있는 시민의식을 고취시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또한 정치-자본가가 다시 독점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한 국가 권력이 유지, 존속되기 위해서 시민의 비판적 견제와 협력이 가능할 수 있는가? 나아가서 세계질서 속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면서도 이 땅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어떻게 시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진지한 물음들이 우리 앞에 있음을 묵도하며 본고가 전하는 메시지를 다시금 숙고하게 한다.

<코로나 이후 시대의 한국 사회와 교회>에 관하여,

위드 코로나 시대, 사회, 경제, 정치, 종교적으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일상이 중단되는 경험은 문명의 불가피한 전환과 함께 궁극적으로 나의 실존 문제, 내가 속한 (국가)공동체에 대한 문제로 환원된다. 이에 “우리는 삶의 멈춤, 그 자발적 순응의 과정에서 시민의식을 실천했다!”는 당위적 명제는 “실제로 무엇이 멈추었으며, 과연 어디서 시민의식을 실천했는가?”라는 비판적 물음으로 전환된다. 코로나19 상황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생명(삶)의 안전 사이의 모순을 드러낸 정치적 위기이다. 비단 코비드19만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된 장마와 연이은 태풍은 정치적 위기를 극대화시켰다. 노인, 어린이, 장애인, 열악한 노동 환경에 내몰린 일일 노동자들같은 사회적 취약 계층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고, 도시가 아니라 지방,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 도시적 혜택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도시적 삶의 물자를 생산, 공급하는 이들의 삶이 초토화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이재민의 확산 정도와 사망자, 교량 파괴, 산사태 등의 경제적 손실을 보여주는 숫자들은 우리에게 공포와 불안의 전율을 전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의 고통과 상실감이 닿지는 않는다. 우리는 공감과 연대를 넘어 비판적 거리감을 유지하기 보다는 차라리 동정심과 불안감 그리고 물리적 거리감을 선택한다.

이 점에서 두 번째 글은 코로나19가 촉발한 혼돈과 혼재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가?”를 묻는다. 지금의 재난을 전쟁으로 비유하는 것은 현상을 은폐하는 의도적 장치이자 지금의 위기를 “어쩔 수 없음”이라는 나태함과 무기력함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 긴박한 위기의식과 은폐된 강요는 비판적 생각의 거리를 차단하고 의심의 자세, 곧 현상에 대한 질문을 틀어 막은 채, 자발적 순응이 선량한 시민의 자세라고 호도한다는 것이다. 100년 전 세계 전쟁과 경제 대공황, 그리고 스페인 독감의 망령이 2020년 재현되고 있다는 선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선택지에 동그라미를 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위기(crisis)는 그리스어의 어원(krinein)에 따르면 ‘판단하고, 구분하여 분리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재난이 곧 기회다’라는 말 이전에 본래 이 용어가 갖는 함의는 긴박함 앞에서 판단하고 결정함으로써 전과 다른 분리의 지점을 만들어 낸다는 데 있다. 위기는 뉴노멀을 만들어 낸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이전의 안일한 경제체제에 편승하면서 지금의 불안정

1) 프랜시스 후쿠야마,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정치학』, 이수경 역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2020), 189-200.

과 혼란이 새로운 정상성의 범주가 될 거라는 낙관적 선전이 도처에 깔려있다. 본고의 지적대로 뉴노멀이 갖는 고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멈춰서서 재난 앞에서 이 세계가 잃어버린 가치가 무엇인가 묻고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그 핵심에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뉴노멀을 찾는다는 것은 인간 문명이 발전시켜온 인간과 세계 이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포함하는 것이며, 새로운 인간과 세계 이해를 표현해 내는 일이라고 본다. 교회와 신학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정상 질서를 위해서 말해왔던 신학적 인각학을 그 근본에서부터 재고하는 일을 통해 뉴노멀을 말해야 할 것이다.

본고의 다부진 선언에는 그간 교회가 자본에 논리에 편승하고 목회자 또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권위적 권력 구조, 위계적 질서 속에서 하나님을 잃고 사람을 잃어버린 데 대한 심오한 고민과 성찰이 담겨 있다. 디지털에 기반한 소비자본주의, 언택트 시대가 가져올 새로운 정상성은 “철저하게 탈맥락화되고 탈영토화된 소비자, 소비욕망으로 객관화되고 정체화된 소비자만이 살아있는 세계”이다. 그럼에도 코비드19의 재난을 기회로 삼은 디지털 뉴딜은 피상적 인간 이해에 바탕을 둔 유토피아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 한복판에 교회가 있다는 것이다. 교회를 변화로 이끌어낼 지금의 위기가 새로운 매체의 기술적 실험이 되어서는 안되며, 사람과 생명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하나님과 인간의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근본적 변화, 진정한 분리의 지점이 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스러는 우리로 하여금 거대한 문명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어쩌면 파국은 이미 우리 안에 와있었는지 모른다. 다만, 우리의 욕망과 나태함이 파국을 지연시키고 있었을 뿐이다. 회복탄력성에 대한 기대가 뉴노멀을 이끌어 갈 것이라는 낙관적 제안보다는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파국을 직시하면서 폐허 속에서 철저하게 다시 회복 불가능한 교회를 발견해야 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침탈되는 역사 앞에서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다시 시작했다. 나라 없이, 성전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상과 비전을 담아내었다. 어쩌면 교회는 어질픈 사과나, 성마른 회복을 말하기 전에 제대로 된 파국의 선언을 해야 할 것이다.

코비드 19만큼이나 언택트가 일상이 된 시대이다. 예배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교회는 어떤 공동체의 가치를 구현할 것인가, 탈종교를 말하는 시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수많은 물음이 오간다. 그럼에도 무엇보다 먼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파국을 고하면서도 우리는 물어야 할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는 이미 언택트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텍스트한다는 명목으로 보이는 사람과 세계에 행사해왔던 권력과 폭력들, 그 일그러진 교회의 모습이 나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고백에서 지금의 파국 선언이 유의미하게 시작될 것이다. 이것은 평등하고, 자발적이며, 어쩔 수 없음을 거부함으로써 비판적 거리를 지닌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고민하고 진짜 사람을 관심하는 기독교적 시민 역량이 절실히 요청된다.

코로나 이후 세계와 교회는 이전의 그것이 아니다!

이상철
(크리스찬아카데미)

폭풍은 지나가고 인류는 살아남겠지만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 것이다...”¹⁾

- 유발 하라리

1. 프롤로그: 대장정의 서막

오늘 1차 토론회는 이번 시리즈의 전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와 교회”라 붙인 제목에 걸맞게 두 발제는 내년 5월까지 이어지는 대장정의 핵심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다. 김준형 원장이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코로나 이후 재편되는 세계질서의 변화를 진단하고 예단했다면, 양권석 신부는 포스트콜로니얼에 입각한 의심의 해석학, 더 나아가 타자성을 바탕으로 한 신학적 인간학으로 코로나 현상을 관측하고 있다.

두 편의 원고를 읽으면서 나는 비록 두 분이 다른 구도와 각도에서 코로나19를 바라보고 있지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방향과 목적지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 논찬문은 두 발제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양자 간의 공감의 영역을 확인하고, 그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둘 사이 해석의 차이, 혹은 차이의 해석에 대한 이야기다.

2. 김준형...코로나19로 인한 국제질서 재편 가능성에 대한 낙관적 혹은 비관적 전망

김준형 원장은 세계화가 코로나19로 인해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즉 “자본주의의 무한한 욕망을 잠재우고 진정한 삶의 질을 추구하는 단계로 진입할 기회”를 얻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

1) 2020년 3월 20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즈에 기고한 「The world after coronavirus」란 글에서 유발 하라리는 “Yes, the storm will pass, humankind will survive, most of us will still be alive — but we will inhabit a different world”라고 말한다.

☞ <https://www.ft.com/content/19d90308-6858-11ea-a3c9-1fe6fedcca75>

을 하면서 글을 맺고 있다. 하지만 거기까지 도달하려면 고려해야 할 것이 많음을 그는 잘 알고 있다.

김원장은 코로나19가 세계화의 한계와 종말을 지시하는 징후적 사건으로 분석한다. 자본의, 자본에 의한 전 지구적 재편은 국경의 해체와 지역과 문화의 차이를 해소시켜 하나 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같으나, 그 과정에서 자본의 이익에 반하는 세력은 도태되고, 오직 자본의 논리만이 정언명법이어야 한다는 새로운 전체주의의 탄생을 야기 시켰다. 그 결과 오히려 시대가 거듭될수록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는 강화되고, 상대적으로 시민의 힘은 약화되었다고 발제자는 지적한다.

2008년 금융대란은 사실상 세계화의 종말을 고한 사건이었다. 이후 세계 경제는 실업과 장기침체, 빈부격차의 심화를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듯하다. 이런 부조리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를 저지할 수 있는 세력은 쉽게 등장하지 않았다. 그런데 도적같이 도래한 코로나19가 현 시스템에 대한 체질개선 혹은 대안적 가치에 대한 과제를 던지고 있는 셈이다. 코로나19 방역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세계화 과정에서 왜소해진 국가권력의 부활을 놓고 전개되고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리와 작동방식에 대한 논쟁은 그것을 드러내는 예라 할 수 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코로나 19의 발생지로 중국 우한이 지목되자 중국은 국가적 방역에 대한 총동원령을 선포하였고, 그것은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 그 후 중국에서 소강상태로 접어든 코로나19는 유럽과 북미 등 서방으로 빠르게 번져 사회적 재앙으로 확대되는 조짐을 보였다. 이에 중국은 성공한 자신들의 방역에 체제 경쟁적 해석을 부과하였는데, 그것의 골자는 자유민주주의보다 체제통합적 권위주의가 낫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중국의 체제선전에 서방은 중국에 대한 반론으로 한국을 내세웠다. 워싱턴포스트(3/11)는 한국의 개방성과 투명성이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차단했다고 평가하면서, “민주주의가 코로나19에 맞설 수 있다는 걸 한국이 보여줬다”는 중국 견제성 보도를 내보냈고, 다른 서방의 주요 언론들도 비슷한 논조로 ‘K 방역’을 높이 평가하였다. 문제는 그 다음에 나타났다. 미국을 비롯한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 등에서 코로나19가 견잡을 수 없게 확산되어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서방언론의 스텝이 꼬이기 시작한 때가 그 무렵이었다. ‘K 방역’이 민주적 개방성과 투명성, 높은 시민의식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면, 그런 가치들의 본고장이라 자부하는 유럽과 미국은 무엇이 되는가! 이때부터 한국을, 중국이 맹주로 있는 동아시아 문명, 유교문명 속에 위치시켜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등장했고, 프랑스 사회학자 기 소르망의 발언은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출몰한 사건이었다.

지난 4월 27일 프랑스 한 주간지와와의 대담에서 기 소르망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유교문화가 선별적 격리 조치의 성공에 기여했다. 한국인들에게 개인은 집단 다음이다. 한국은 심한 감시 사회다.” 기 소르망의 발언에는 서방은 개방적이고, 국민들의 자유를 중시하며, 정부에 대해 뼈뼉하게 바라보는 근대적 시민의식이 뛰어나다는 우월감이 깔려있다. 방역에 비교적 성공적인 한국이나 중국 같은 유교문화권에서는 권위주의, 집단주의,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위한 희생의 논리가 강하다는 생각은 서구인들의 식민주의적 편견에 사로잡힌 일종의 집단무의식 아닐는지. 이 논쟁을 통해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귀환한 강력한 국가주의를 둘러싼 미묘한 온도차를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공동체주의와 개인주의 갈등과 긴

장, 고의적으로 동양을 열등한 타자로 바라보는 오래된 서구의 시선, 미국의 중국을 견제하려는 심리 등 많은 역학이 숨겨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정국에서 국가주의의 도래와 관련하여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사안이다. 국가주의의 틀을 넘어 협력과 연대를 추구하는 지구촌공동체로 갈 것 인가? 아니면 “나부터 살고보자!”를 모토로 타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을 더욱 강화하는 국가시스템으로 갈 것 인가?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우리는, 물론 바이러스의 정체를 묻고 따져야 하겠지만,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를 근본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상상해야 한다. 공동체끼리의 연대와 협력인지, 아니면 고립과 배제인지를 놓고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

김준형은 갈림길에서 국가의 공공성 확대, 지역공동체 구성원끼리의 상생적 관계수립을 염두에 두는데, 그것은 당연히 한반도와 동북아 현실에서 평화공존의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으로 연결된다. 이런 변화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야만의 상태로 추락할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발제자는 독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마감한다: “혼돈과 불안이 일상이 되는 속에서 자본주의의 무한 욕망을 잠재우고 진정한 삶의 질을 추구하게 만드는 역설은 과연 가능할까?”

김원장이 던진 질문은 나의 귓가에서 한참을 맴돌았다. 과연 우리는 코로나19를 어떻게 횡단해야 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남아 남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갖고 며칠을 지내고 나서 양권석 신부의 글이 도착했다.

3. 양권석...의심의 해석학으로 읽는 코로나19_ '타자를 위한 존재'로서의 교회를 상상하라

양권석 신부의 글은 코로나19 현상과 더불어 발생하는 담론들을 성찰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는데, 나는 그것을 ‘의심의 해석학’이라 부르고 싶다. ‘의심의 해석학’은 성서신학자 피오렌자가 가부장제 체제 안에 갇혀 있는 기존 성서해석을 거부하면서, 페미니즘 관점으로 성서를 읽을 수 있다는 제안을 하면서부터 생겨났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해석과 전통과 입장에 대한 의심이 필수적이다.

내가 발제자의 글을 ‘의심의 해석학’이라 부르는 이유는 분명하다. 코로나19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분석과 대안에 대해 양권석은 쉽게 동의하지 않은 채 거리를 두고 그 증상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그는 코로나19 정국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내세우면서 전개되는 발언과 행위들에 대해 의심한다. 어쩔 수 없기에 그러므로 ‘...해야 한다’라는 일반화 공식이 갖는 위험을 양권석 신부는 지적하고 있는 셈이다.

무수한 코로나19를 둘러싼 소문들이 있는데, 그 소문의 출처에 대해, 원인과 과정에 대해, 전망에 대해 그 누구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는 사태가 코로나19의 현상학이다. 불확실한 선택의 상황 속에서 근대 이후 인간의 행위를 규정했던 원칙이 바로 공리주의와 실용주의다. 공리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사고는 다수에 들지 못하는 소수자들, 혹은 (사회시스템 안에서)비효율적인

존재들로 지목당한 자들의 아픔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발전의 원칙과 재난 사회의 극복을 위한 지혜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성과와 효율과 결과를 중요시 한다. 전쟁상황 이니까, 사회가 불안하니까, 경제가 안 좋으니까...등등의 특수상황을 핑계로 얼마나 많은 예외적 조치와 강제적 조항들이 역사의 진행과정에서 존재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정서가 공리주의와 실용주의라고 한다면 너무 과문한 판단일까.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분명한 것은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워지고 도태되어 고통의 한복판으로 몰릴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파장이 종전보다 광범위하고 상흔 또한 깊을 것이라는 파국의 전망은, 그것의 진위여부를 떠나 이미 번져버린 코로나19 묵시록이 되어버렸다. 발제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혹 발생할지 모를 공리주의와 실용주의에 바탕한 전체성의 논리를 경계한다. 우리가 지키고 사수해야 할 가치들이 “어쩔 수 없음”에 휩쓸려갈 때, 우리사회는 야만의 법칙들이(예를 들어 노약자에 대한 차별, 장애인, 성소수자, 난민과 이방인들에 대한 혐오 등) 난무하는 정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지점이 코로나19 세계를 향한 신학적 개입이 시작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발제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새롭게 신학적 인간학과 교회론을 정초하는 것이고, 그 밑바탕에는 타자에 대한 해석학이 깔려있다. 양신부의 코로나19시대 타자론은 Untact(언택트, 비대면)에 대한 비판적 읽기로부터 시작된다. Untact는 코로나19가 탄생시킨 신조어는 아니다. 첨단 테크놀로지 정보화시대와 소비자본주의가 결합되기 시작할 때부터 등장했던 용어가 Untact이다. 그것의 핵심은 연결(connection)은 있으나 작용(interaction)과 소통(communication)이 생략되어 있다는 점이다. 인격적 상호작용과 접촉이 없어도 관계는 가능하다는 논리가 내부에 깔려있고, 그것이 21세기 상품의 구입과 소비에 대한 보편적 유통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를 21세기 자본은 사람중심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일찍이 슬라보예 지젝은 21세기 자본이 조성한 Untact를 기반으로 한 문화를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라 지적한 바 있다. 자기만의 방에 갇힌 개체들은 인터넷 공간을 통해 세상과 이어져 있기에 만나지 않고도 느슨한 수평적 연대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연결되어 있기에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자신이 진보적이라고 착각한다. 바로 이점이 문제의 본질을 바로 보지 못하는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Untact에 기반한 문화가 사회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과 체제를 향한 저항, 즉 체제에 대한 수직적 적대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지젝은 그것을 21세기 자본이 기획한 고도의 전략임을 꿰뚫었다. 누구나 이제는 맑스주의와 페미니즘과 퀴어이론 등 진보적 사상을 알지만, 그것이 아이러니 하게도 전혀 위협하지가 않다. Untact 문명은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가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라는 미명아래 이미 한세대 전부터 지구촌에 유포시킨 바이러스 였던 것이다.

나는 지난 세기 동안 진행되었던 지구적 자본이 이룩한 업적이 Untact 문화에 기반한 타자에 대한 영지주의화 과정이었다고 판단한다. 타자의 고통을, 이웃의 아픔을 현실에서 분리해 가상공간으로 밀어내 거리를 둔 채로 관조하는 우리들, 물론 우리는 그런 현실에 아파하고 분노하고 함께 인터넷 공간에서 목소리를 내지만,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진보적 행위의 끝이다. 양권석의 글은 나로 하여금 Untact로 특징지어지는 21세기 자본의 음모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코로나19 시대 Untact 문화는 낯선 것 같지만 익숙한 새로움이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으로 당도한 곳이 교회다. 세상의 모든 분야는 Untact에 익숙해져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 까지 교회는 Untact보다는 tact(대면)적 관계가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공간이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21세기 자본이 이룩한 Untact 문명은 교회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말이고, 이제 유일하게 남은 Untact의 대상은 교회라는 뜻이기도 했다. 그런 교회의 신화가 코로나19로 붕괴되는 현실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Untact를 강요당하는 현실속에서 교회의 대응법은 자본의 확장을 통해 번져나갔던 Untact 문명의 그것과는 달라야 한다고 양신부는 강조한다. 자본의 목소리가 증가하면서부터 사람들은 타자를 대상화하고 타인의 고통을 나와 관계없는 현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는데, 교회마저 그렇게 반응한다면 어디에다 인간은 희망을 두겠는가. 최종적으로 발제자는 스스로에게 질문한다. 코로나 19 이후 교회와 예배는 무엇이고, 그곳에서 맺어지는 새로운 관계형성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는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발제자는 노멀(Normal) 교회가 지니는 성직자 중심의 일방적, 관습적 패턴이 아닌 신자들 사이, 그리고 교회와 지역 사이 단순한 연결만이 아니라, 작용(interaction)과 소통(communication)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관계를 이제부터 상상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렇듯 교회는 종교개혁이후 5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코로나19를 계기로 스스로를 변혁해내야만 하는 제단위로 바쳐졌다.

4. 에필로그: 한국교회는 다시 소생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김준형 원장과 양권석 신부의 코로나19 이후 세계와 교회를 진단하고 예단하는 글을 따라가면서 공감했던 사항들을 함께 나누었다. 두 분의 깊이 있는 글을 접하고 되새김질 하면서 나의 의식이 최종적으로 당도한 지점은 한국개신교의 현실이었다. 코로나19 정국에서 보이는 현실의 교회는 퇴행적이다 못해 사회악으로 비난 받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굳이 이 자리에서 전광훈과 이만희가 ‘코로나19’ 정국에서 보인 말과 행위를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나는 그 자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중세 페스트가 창궐했던 무렵 등장했던 교회의 광신적 행위들이 생각났다.

물론 우리는 중세 ‘채찍질 고행단’처럼 채찍을 몸에 내리치고 회개하면 전염병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과는 다른 계몽되고 지성적인 신앙인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과연 그런가, 라는 의심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왜일까. 중세와는 다른 종류의 비이성과 무지와 광기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SNS를 통한 가짜 뉴스, 각종 음모론과 루머, 그리고 인종차별, 성차별적인 발언과 행위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빠르고 독하게 우리사회를 감염시키고 있다.

특히 한국교회에 팽배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무지, 이슬람과 난민에 대한 혐오의 경향은 흑사병의 원인이 쥐에서 기생하는 쥐벼룩이라는 것을 몰랐던 중세 교회 신자들이 부랑자, 유대인, 마녀들, 이방인 등이 페스트를 일으킨다고 생각하고 집단적인 폭력과 학살을 자행했던 그것

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는 중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전광훈과 다를 바 없는 신앙인들이다. 코로나19는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한국개신교의 민낯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고, 비대면 예배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부와의 갈등과 긴장 국면에서 교회는 미성숙한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스스로를 계도화하는 운명으로 몰아갔다.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역사를 통해 절망적인 상황을 지나왔던 교훈을 접한다. 특별히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는, 중세 페스트로 인해 등장한 죽음의 그림자 뒤에 의외로 합리주의가 등장했다는 점이다. 역병과 재앙으로 인한 죽음이 불러온 존재론적 허무주의는 인식론적으로 기존의 질서에 대한 회의주의로 연결되었다. 르네상스가 꽃피울 수 있었던 것도 신적 세계에서 벗어나려는 인간정신에 대한 찬양과 중세 교회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로부터이다.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도 죽음의 폐허를 극복하려는 (신앙이 아닌) 인간정신의 발버둥이었다고 보면 맞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역병이 휩쓸고 간 자리에서 반지성주의를 극복하려는 근대적 이성이 탄생한 것이다.

중세사회가 페스트 정국을 거치고 종교개혁을 지나 새롭게 태어났듯이, 21세기 사회와 교회도 코로나19 정국을 거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받을 것이다. 물론 그것을 막으려는 반동적 몸부림도 드세리라 본다. 하지만 유발 하라리 말처럼 코로나19 이후 우린 다른 세상에서 살 것이다. 역사는 시대의 전환점에서 힘차게 도약했던 자들에 의해 세계와 교회가 갱신되어 왔음을 전한다. 코로나19는 도적과 같이 그 시간을 우리들에게 앞당겼고, 어쩌면 그것은 신이 우리에게 허락한 세계와 교회를 위한 마지막 선물인지도 모른다. 페스트로 인해 중세가 무너지고 근대라는 새로운 시대로 나갔듯이, 코로나19는 우리들에게 지금과는 다른 삶의 패턴과 의식의 고양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한 준비와 진격을 재촉하고 있다. 김준형과 양권석의 글은 이것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선사하는 세계사적이고 역사철학적 의미라는 사실을, 신학적 당위라는 사실을 나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었다.

향후 일정

| 장소와 시간

- 1) 장소: 평창동 대화의 집 (시즌1) & 기독교회관 조예홀 (시즌2, 특별프로그램)
- 2) 시간: 오후 6시 시작
- 3) 코로나 상황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 (1차 - 9월 14일 토론회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 내용

1) 시즌 1

1차 - 9월 14일(월) 오후 6시 / “코로나19 이후 세계와 교회”

: 코로나 19 이후 변화된 세상 속에서 그에 걸맞는 삶과 신앙의 방식에 대한 새로운 상상을 도모하는 총론적 성격의 1차 토론회이다. 앞으로 다루게 될 토론주제들에 대한 개괄적 소개와 그것이 지닌 의미에 대해 전망한다.

- 인사말: 채수일(크리스찬아카데미 이사장) 이홍정(NCCK 총무)
- 발제: 김준형(국립외교원, 정치학) 양권석(성공회대, 신학)
- 논찬: 홍인식(한국기독교연구소) 송진순(이화여대) 이상철(크리스찬아카데미)
- 정리와 총평: 박창현(감신대)

2차 - 10월 12일(월) 오후 6시 / “코로나19 이후 생명과 자연에 대한 성찰”

: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연구보고에 의하면 생태계의 파괴와 기후변화의 문제가 금번 사태와 긴밀하게 연동된 문제임이 밝혀지고 있다. 이는 위기로 몰리는 생명현상과 자연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이다. 2차 토론회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지니고 생명과 학자를 초대해 바이러스를 포함한 생명일반의 문제를 다루고, 그에 대한 다방면의 신학적 진단과 성찰의 시간을 마련한다.

- 발제: 유지환(연세대, 의생명과학) 김경재(한신대 명예교수, 신학)
- 논찬: 백소영(강남대) 이진형(기환연) 김정원(향린교회)
- 정리와 총평: 이은경(감신대)

3차 - 11월 9일(월) 오후 6시 / “코로나 19와 한국사회 현상학”

: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대외적으로 K-방역의 선진성이 주목을 받으면서 한국의 사회시스템과 그를 지탱하고 있는 전통과 배경에 대한 관심과 논의들이 많이 등장했다. 한편 신천지와 일부 개신교의 파행적 행보는 한국사회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다는 점에서 주목의 대상이었다. 이렇듯 코로나 19를 통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다양한 민낯과 대면할 수 있었고, 이는 종교사회학적으로 한국사회를 바라보는 폭넓은 시각을 요청한다. 3차 토론회에서는 “코로나 19와 한국사회 현상학”이라는 제목으로 코로나 시대 사회현상을 폭넓게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

■ 발제: 김선욱(숭실대, 철학) 이숙진(이화여대, 신학)

■ 논찬: 황용연(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김혜령(이화여대) 나성권(성공회 교육국)

■ 정리와 총평: 김희현(향린교회)

4차 - 12월 14일(월) 오후 6시 / “코로나19시대의 공동체, 그리고 교회”

: K-방역으로 부각된 한국사회의 공동체주의와 그와 대척점에 서있는 개인주의 사이 발생하는 갈등과 조화의 문제를 다룬다. 코로나19는 방역을 위한 국가주의의 등장에 대해 옹호와 견제하는 그룹사이 이견을 노출시켰다. 이는 공동체주의와 개인주의 사이 발생했던 사회철학의 오랜 난제이기도 하다. 교회 역사의 발전과정에서도 공동체내 의사소통과 결정의 문제는 중요한 교회사 사건의 사건이었고 교회론의 주제였다. 코로나19는 교회와 사회에서 예외상태가 등장했을 때 공동체의 운영과 화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둘러싼 문제를 제기하였다. 4차 토론회는 “코로나19 시대의 공동체, 그리고 교회”라는 주제로 이 문제를 다룬다.

■ 발제: 이삼열(대화문화아카데미, 사회철학) 정미현(연세대, 신학)

■ 논찬: 오현선(전 호남신대) 최순양(협성대) 한수현(감신대)

■ 정리와 총평: 박도웅(감신대)

2) 특별 프로그램: “코로나 19 이후 사회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결과발표

■ 일시와 장소: 1월 11일(월) 오후 6시 / 종로5가 기독교회관 조예홀

☞ 기사연 프로젝트: “코로나 19 이후 사회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라는 제목으로 정치(이상철), 생태·경제(신익상), 한반도 및 국제관계(김상덕), 젠더 및 사회 취약계층(송진순), 교회 및 신앙관(이민형) 등 6가지 분야에 걸쳐 1000명의 개신교인을 상대로 코로나19 이후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2020년 말에 보고서 형식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시즌 1을 마치고 이에 대한 결과발표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3) 시즌 2

5차 - 2월 8일(월) 오후 6시 / “언택트 사회 속에서 새로운 신앙을 묻다”

: 코로나19는 우리사회 곳곳에서 언택트 문화를 빠르게 정착시키고 있다. 종교분야에서도 언택트 양상은 두드러진 특색으로 자리잡아 기존의 신앙생활과 패턴에 많은 변화의 조짐이 등장하

고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19이후 전개되고 있는 언택트 상황 속에서 종교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 인가? 새롭게 조성된 상황은 우리의 기존 신앙에 대한 점검과 새로운 신앙패턴에 대한 상상을 가능하게 한다. 5차 토론회는 “언택트 사회 속에서 새로운 신앙을 묻다”를 주제로 코로나 이후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다.

■ 발제: 조한혜정(연세대 명예교수, 문화인류학) 정경일(새길기독사회문화원, 신학)

■ 논찬: 김상덕(기사연) 조성돈(실천신학대학원) 박홍순(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

■ 정리와 총평:

6차 - 3월 8일(월) 오후 6시 / “코로나19와 대안적 경제 - 생태적 순환경제로의 전환”

: 코로나19 위기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경제위기 상황을 초래함과 동시에 기존의 경제질서에 대한 근본적 재편을 요청하고 있다. 공급, 수요, 소비가 한꺼번에 붕괴되는 전면적 위기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인간의 삶을 위한 수단으로서 경제질서는 과연 어떻게 재편되어야 할까?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부추기는 가운데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을 옳아매은 경제체제로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6차, 7차 토론회는 새롭게 구성해나가야 할 대안적 경제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다루고자 한다.

■ 발제: 홍기빈(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경제학) 강원돈(한신대 은퇴교수, 신학)

■ 논찬: 홍인식(한국기독교연구소), 김유준(연세대), 신익상(성공회대)

■ 정리와 총평:

7차 - 4월 12일(월) 오후 6시 / “코로나19와 대안적 경제 -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향하여”

: 코로나19 위기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경제위기 상황을 초래함과 동시에 기존의 경제질서에 대한 근본적 재편을 요청하고 있다. 공급, 수요, 소비가 한꺼번에 붕괴되는 전면적 위기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인간의 삶을 위한 수단으로서 경제질서는 과연 어떻게 재편되어야 할까?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부추기는 가운데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을 옳아매은 경제체제로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6차, 7차 토론회는 새롭게 구성해나가야 할 대안적 경제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다루고자 한다.

■ 발제: 이승윤(중앙대, 사회복지학) 최형묵(민중신학회, 신학)

■ 논찬:

■ 정리와 총평:

8차 - 5월 10일(월) 오후 6시 / “마무리 대토론”